

석사학위논문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사동 표현 교육 연구

2014년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주 원 사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선옥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사동 표현 교육 연구

A Study of Causative Expression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Chinese learners

2013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주원사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선옥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사동 표현 교육 연구

A Study of Causative Expression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Chinese learners

위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주원사

주원사의 문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사동 표현 교육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주 원 사

본 연구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인 사동 표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사동 표현이 매우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중국어에는 어미가 발달하지 않고 한국어처럼 ‘-이, -히, -리, -기, -우, -추, -구’ 같은 사동 접미사가 없기 때문이다. 대조언어학에 의하면 외국인 학습자가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거나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주로 모국어와 외국어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재에서 사동 표현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어 교재는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고려대, 연세대, 경희대, 서강대, 이화여대와 중국 북경대 6 대학교에서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재에서 나타난 사동 표현과 관련된 부분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1장 서론 부분에서 이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밝히고, 선행 연구로 통해 문제 제기를 한다.

2장에서는 한국어 사동 표현의 개념을 정리하도록 하고, 한국어 사동 표현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동’의 사전적인 의미 해석은 ‘주체가 제3의 대상에게 동작이나 행동을 하게 하는 동사의 성질’이다.(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본고에서는 한국어의 사동 표현 연구에

서 사용되어 온 분류 방법에 따라서 사동 표현들을 나누고, 이를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최현배(1937)에 의하면 한국어의 사동 표현은 ‘-이, -히, -리, -기, -우, -추, -구’의 ‘사동 접미사’에 의한 ‘접미사 사동’과 명사‘N’과 ‘시키다’의 결합인 ‘N-시키다’에 의한 사동문, 그리고 보조 동사 ‘-게 하다’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통사적 사동’이 있다.

본고는 중국어 학습자를 위한 연구이므로 중국어 사동 표현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도 기술하고자 한다. 한국어에 비하여 중국어는 고립어이기 때문에 형태 변화가 없고, 서술어의 어휘적 의미와 통사적 구성 방식에 의하여 사동의 의미가 표현되기 때문에 사동 표현을 구별하는 기준을 찾기가 어렵다. 본고에서 중국어 사동 표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았다. 하나는 ‘使’, ‘给’, ‘叫’, ‘让’ 등 여러 가지 사동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동 전치사를 의해서 만들어지는 통사적 사동 표현, 즉, ‘유표지 사동 표현’이고. 또 하나는 특정한 사동 표지 없이 다른 사동성을 가지고 있는 타동사를 이용하는 어휘적 사동 표현, 즉, ‘무표지 사동 표현’이다.

이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한국어와 중국어의 사동 표현에 존재하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사동 표현이 어떻게 교수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현재 한국 국내 대학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 6권과 중국 대학에서 한국어 전공으로 배우는 학습자를 위한 교재 1권, 총 7 권을 대상으로 삼아 분석하겠다.

4장에서는 교재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효율적인 한국어 사동 표현 교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5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할 것이다.

【주요어】 사동표현, 중국인 학습자, 한중 대조, 교재 분석, 교육 방안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의 목적	1
1.2 선행 연구 검토	2
1.3 연구 방법	4
II. 사동 표현의 개념과 유형	6
2.1 사동 표현의 개념	6
2.2 한국어 사동 표현의 유형	8
2.2.1 접미사 사동	8
2.2.2 ‘시키다’ 사동	11
2.2.3 ‘-게 하다’ 사동	12
2.3 중국어 사동 표현의 유형	15
2.3.1 ‘무표지’ 사동	15
2.3.2 ‘유표지’ 사동	18
2.4 한·중 사동 표현의 대조 분석	22
III. 한국어 교재의 사동 표현 분석	29
3.1 교재 분석의 실제	29
3.2 교재 분석 결과	47
IV. 사동 표현 교수 학습 방안	50
4.1 교육자료 구성	50
4.2 교수 방안	50

V. 결 론	72
참고문헌	73
ABSTRACT	75

표 목 차

〈표 1〉 사동 접미사와 결합한 단어들	9
〈표 2〉 사동사 전환 불가 동사	11
〈표 3〉 한국어 접미사 사동과 중국어 사동의 대조	27
〈표 4〉 분석 대상 교재	29
〈표 5〉 고려대 〈재미있는 한국어4〉에서 사동 표현 제시 상황	32
〈표 6〉 연세대 〈연세 한국어3-1, 3-2〉에서 사동 표현 제시 상황	35
〈표 7〉 경희대 〈한국어 고급2〉에서 사동 표현 제시 상황	38
〈표 8〉 〈서강 한국어5A〉에서 ‘-게 하다’ 사동 표현의 제시 방법	42
〈표 9〉 서강대 〈서강 한국어5A〉에서 사동 표현 제시 상황	43
〈표 10〉 이화여대 〈이화 한국어3-1〉에서 사동 표현 제시 상황	45
〈표 11〉 북경대 〈한국어 2〉에서 사동 표현 제시 상황	47
〈표 12〉 각 교육기관 한국어 교재 내 사동 표현 제시 상황	48
〈표 13〉 PPP모형과 TTT모형	51
〈표 14〉 한국어 수업 단계 및 단계별 내용	52
〈표 15〉 한국어와 중국어 접미사사동 어휘 대조	58

그 립 목 차

〈그림 1〉 고려대학교 〈재미있는 한국어4〉-1	30
〈그림 2〉 고려대학교 〈재미있는 한국어4〉-2	31
〈그림 3〉 고려대학교 〈재미있는 한국어4〉-3	31
〈그림 4〉 연세대학교 〈연세 한국어3-1, 3-2〉-1	33
〈그림 5〉 연세대학교 〈연세 한국어3-1, 3-2〉-2	34
〈그림 6〉 연세대학교 〈연세 한국어3-1, 3-2〉-3	34
〈그림 7〉 연세대학교 〈연세 한국어3-1, 3-2〉-4	35
〈그림 8〉 경희대학교 〈한국어 고급2〉-1	37
〈그림 9〉 경희대학교 〈한국어 고급2〉-2	37
〈그림 10〉 서강대학교 〈서강 한국어5A〉-1	39
〈그림 11〉 서강대학교 〈서강 한국어5A〉-2	40
〈그림 12〉 서강대학교 〈서강 한국어5A〉-3	41
〈그림 13〉 서강대학교 〈서강 한국어5A〉-4	42
〈그림 14〉 이화여자대학교 〈이화 한국어3-1〉-1	44
〈그림 15〉 이화여자대학교 〈이화 한국어3-1〉-2	45
〈그림 16〉 북경대학교 〈한국어 2〉	46

I. 서 론

1.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에서 나타난 사동문 관련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사동 표현 교육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이 국제에서의 위상이 상승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류 열풍의 일어남에 따라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외국어에 대한 습득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각 나라의 언어마다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발음, 어휘 및 문법 측면에서 모국어와 비슷한 점이 있겠지만 차이점도 역시 적지 않다. 예를 들면, 한국어는 교착어로서 문장의 문법적 관계가 주로 조사와 어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반면 중국어는 고립어로서 주로 어순을 통해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두 언어의 가장 큰 차이 중의 하나이다. 또한 한국어의 어순은 SOV형이며 중국어의 어순은 SVO형이기 때문에 외국인 학습자에게도 어려운 부분이 되고 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 대하여 학습자들이 느끼고 있는 어려운 부분은 계층법, 간접인용, 사동 및 피동 등이 들 수 있다. 계층법의 경우, 상대방에 따라 존대여부를 결정한다. 간접인용의 경우 문형과 품사에 따라 인용의 표지가 달라진다. 사동 및 피동의 경우, 사동주, 피동주의 식별, 격조사와의 결합, 유형 등으로 더욱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인 사동 표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동 표현을 연구범위로 지정하는 이유는 사동 표현이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가 가지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표현 방식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에게 가장 어렵게 생각되는 부분으로 꼽힐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인과 교류할 때 사동 표현을 보다 정확하게 사용하게 하는 것은 한국어 교사들이 당면한 시급한 과제이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 있어서 사동 표현에 관한 연구는 오래 전부터 진행돼왔지만 다른 문법 범주들에 비해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왔다. 또한 사동 표현에 대한 정의, 범주, 유형 구분 등에 대한 관점이 다양하고 학자들마다 달라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에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를 살펴보면 한국어 사동 표현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과 설명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이로 인하여 학습자들은 한국어 사동 표현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중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사동 표현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더욱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한국어 교재에서 나타난 사동 표현 관련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사동 표현 교육 방안을 도출하고 중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어 사동 표현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고,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을 형성하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며 현장에서의 한국어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1.2 선행 연구 검토

첫째, 한국어 사동 표현의 유형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한국에서 사동 표현의 유형을 최초로 언급하는 학자는 최현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최현배는 사동 표현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논의한 바가 있었으며 사동 표현을 하임법으로 불렀다. 그에 의하여 제기한 하임법의 분류는 오늘날 사동 표현에 대한 유형에 대한 연구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임 움직씨(사동사)란 것은 월의 임자가 직적으로 바탕스런 움직임을 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그 움직임을 하게 하는 꼴스런 움직임을 나타내는 움직씨나 남움직씨나 다 마찬가지로 하임 움직임으로 만들 수 있다. 이 하임 움직임을 만드는 법을 하임법이라 하나니: 우리 말의 하임법에는 세 가지 법이 있느니라. ‘첫째 하임법’이란 것은 예사의 움직씨에 하임 도움줄기 ‘-이, -리, -우, -기’를 더하여 하임 움직임으로 만드는 법을 이름이니라. ‘둘째 하임법’이란 것은, ‘하다 따위 움직씨’는 하임으로 만들에는 ‘하다’에 대하여 하임의 뜻을 나타내는 제힘움직씨 ‘시키다’의 줄기 ‘시키’를 그 ‘하다’의 ‘하’대신에 갈아 넣어서 만드는 법을 이름이라. ‘셋째 하임법’은 예사 움직씨와 ‘하다 따위 움직

씨'를 물론하고, 또 제움직씨와 남움직씨를 물론하고 두루 통하는 일반적 규칙을 이룸이니: 모든 움직씨의 감목법 어찌꼴 '-게'에 도움 움직씨 '하다'를 더하는 법이니라."¹⁾

남기심·고영근(1993)에서는 사동 표현을 두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하나는 주동사인 자동사나 타동사, 또는 형용사에 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추, -구' 등이 붙어서 이루어진 사동 표현이며 다른 하나는 주동사에 어미 '-게'를 붙이고 보조동사 '하다'를 써서 '-게 하다' 유형의 사동 표현이다.

서정수(1996)에서도 한국어 사동 표현의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누어 논의한 바가 있다. 그는 사동 접미사를 첨가하여 이루어진 사동법을 '접미 사동법' 또한 '짧은 꼴 사동법'이라 부르며 사동 보조동사로 이루어진 사동법은 '보조 사동법' 또는 '긴꼴 사동법'이라고 한다.

사동 표현의 유형에 대해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사동 표현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하나의 술어인 복합동사가 어떻게 두 개의 사건을 지시하는가, 논항구조에서 사동주의 첨가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피사동주가 행동주이면서 동시에 사동에 의해 영향을 입는 대상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사동행위의 직접성/간접성과 피사동주에 대한 통제의 정도 등이 연구주제가 되어 왔다(예컨대, 남원식, 1994; 임유종, 1990; 송영주, 1988; 임홍빈, 1983 등).

그 밖에 홍기선(2002)은 한국어 사동구문의 인지언어학적 분석에서 Kemmer(2001)의 영어 사동구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인지 문법적 관점에서 한국어 사동구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 영어의 'make' 구문과 비교할 때 한국어는 특히 사동주와 피사동주 모두 무정물을 지시하는 비율이 매우 높으며 기본 동사도 행위동사가 아니라 상태동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국어 사동 표현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중국어 사동 표현에 대한 연구도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동 표현의 유형에 대해 합의되지 않았다. 예컨대, 周紅(2005)은 중국어 사동 표현을 어휘 사동과 통사 사동으로 나누고 있으며 어휘 사동을 다시 使字句, 连系句, 致使宾语句로 나누고 통사 사동을 다시 动结句, 得字动结句, 重动句, 把字句로 나누었다.

宛政新(2005)은 使字句, 把字句를 표지사가 있는 사동으로, 使令句, 使成句, 部分得

1) 최현배(2004: P410-418)을 참조.

字句를 어휘 사동으로 가지며 일부 자동사와 형용사를 사동용법을 가진 어휘를 사동 표현으로 분류하고 있다.

박미정(2001)은 어휘 사동과 통사적 사동으로 구분하여 겹류사 放/加/弄+형용사/동사, 동사+결과보어를 어휘 사동으로 보고 겹어문 구조로 이루어진 사동 표현을 통사적 사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셋째, 한·중 사동 표현의 비교와 관련된 연구들이다.

최길림(2007)에서는 언어학적 측면에서 한국어의 사동 표현을 제1사동문, 제2사동문, 제3사동문으로 나누어 각각 중국어 사동 표현과의 대조를 살펴보았다.

손영(2012)은 한중 사동 표현의 대조연구에서는 한국어 사동 접미사는 형용사, 자동사, 타동사와 두루 결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중국어에서 사동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은 형용사와 자동사만 어울려 쓰인다. 한편 사동 기능소의 실현양상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밝히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어의 사동 기능소는 모두 같은 기능을 작용하는 동시에 외형적으로 드러난다. 중국어에서는 외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사동 기능소 '使, 叫, 讓, 令'만 한정되어 이것들 외에 거의 내형 사동 기능소만 나타나고 있다.

김봉민(2012)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사동사 대조연구에서는 한중 사동사의 정의와 범위, 한중 사동사의 결합가 유형, 한중 사동사의 통합적 결합가, 의미적 결합가, 화용적 결합가 등 관련내용에 대해 다루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동 표현에 관한 연구는 국어학적 연구에 비하면 한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그중에서 구체적인 교수 방안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사동 표현에 대한 대조를 바탕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재에서 나타난 사동 표현 관련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1.3 연구 방법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사동 표현이 매우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중국어에는 어미가 발달하지 않고 한국어처럼 ‘-이, -히, -리, -기,

-우, -추, -구' 같은 사동 접미사가 없기 때문이다. 대조언어학에 의하면 외국인 학습자가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거나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주로 모국어와 외국어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재에서 사동 표현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어 교재는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고려대, 연세대, 경희대, 서강대, 이화여대와 중국 북경대 6 대학교에서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재에서 나타난 사동 표현과 관련된 부분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한국어 사동 표현의 개념을 정리하도록 하고, 한국어 사동 표현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사동’의 사전적인 의미 해석은 ‘주체가 제3의 대상에게 동작이나 행동을 하게 하는 동사의 성질’이다.(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본고에서는 한국어의 사동 표현 연구에서 사용되어 온 분류 방법에 따라서 사동 표현들을 나누고, 이를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최현배(1937)에 의하면 한국어의 사동 표현은 ‘-이, -히, -리, -기, -우, -추, -구’의 ‘사동 접미사’에 의한 ‘접미사 사동’과 명사‘N’과 ‘시키다’의 결합인 ‘N-시키다’에 의한 사동문, 그리고 보조 동사 ‘-게 하다’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통사적 사동’이 있다.

본고는 중국어 학습자를 위한 연구이므로 중국어 사동 표현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도 기술하고자 한다. 한국어에 비하여 중국어는 고립어이기 때문에 형태 변화가 없고, 서술어의 어휘적 의미와 통사적 구성 방식에 의하여 사동의 의미가 표현되기 때문에 사동 표현을 구별하는 기준을 찾기가 어렵다. 본고에서 중국어 사동 표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았다. 하나는 ‘使’, ‘给’, ‘叫’, ‘让’ 등 여러 가지 사동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동 전치사를 의해서 만들어지는 통사적 사동 표현, 즉, ‘유표지 사동 표현’이고, 또 하나는 특정한 사동 표지 없이 다른 사동성을 가지고 있는 타동사를 이용하는 어휘적 사동 표현, 즉, ‘무표지 사동 표현’이다.

이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한국어와 중국어의 사동 표현에 존재하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사동 표현이 어떻게 교수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현재 한국 국내 대학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 6권과 중국 대학에서 한국

어 전공으로 배우는 학습자를 위한 교재 1권, 총 7 권을 대상으로 삼아 분석하겠다.
4장에서는 교재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효율적인 한국어 사
동 표현 교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5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할 것이다.

II. 사동 표현의 개념과 유형

2.1 사동의 개념 및 구성요소

사동이란 행위자가 대상자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는 동작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여
기에서 세 가지를 간추려 볼 수 있는데, ‘행위자, 대상자, 하게하다’라는 구성 요소를
정리할 수 있다²⁾. 다음은 사동문의 이 세 가지 구성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
다.

첫 번째 요소는 행위자이다. 사동은 어떤 동작을 ‘하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체가
꼭 있어야 한다. 행위자는 사동주와 같은 용어로서 이 사동자가 없으면 문장에서 그 동
작을 하게 하는 주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해당 문장을 사동문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또한 그 문장은 사동문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되므로 비문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문맥상
사동주가 생략되는 경우가 제외된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지금 수업시간이라 목소리를 좀 낮추세요.
- (2) 유행가를 부르면서 동생을 재웠습니다.
- (3) 시에서 길을 넓힌다.

위의 예문들은 모두 사동문에 속한 문장들이다. 그러나 사동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틀린 문장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들 예문은 사동주가 언급되
지 않았는데도 문맥상 문장에 나타난 어휘 등으로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김명권(2009:11) 한국어 파생 사동사 교수 방안 연구-교재 분석을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두 번째 구성요소는 사동의 대상자, 즉 피사동주이다. 이것은 사동에 관한 정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동의 정의에서도 ‘대상자로 하여금’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문장 성분으로 따져보면 사동문의 목적어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자동사나 형용사가 사동사가 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타동사가 사동사가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해당 동사는 모두 사동사로 바뀌면서 피사동자가 생기는데, 자동사와 형용사가 바뀌는 경우는 직접 목적격인 피사동자가, 타동사가 바뀌는 경우는 간접 목적격인 피사동자가 만들어진다.

- (4) 목이 쉬어서 목소리를 낮추었다.
- (5) 재미있는 친구가 항상 우리를 잘 웃긴다.
- (6) 엄마는 아침마다 딸에게 옷을 입힌다.

예문(4)에서의 사동사 ‘낮추다’는 ‘낮다’라는 형용사가 바뀐 것이고 ‘목소리’가 피사동주가 해당된다. 예문(5)에서의 사동사 ‘웃기다’는 자동사 ‘웃다’로부터 바뀐 것이며 목적격인 ‘우리’가 피사동자가 되어 사동자가 사동의 행위를 하는 대상인 된다. 예문(6)에서의 사동사 ‘입히다’는 타동사 ‘입다’에서 바뀐 것이며 간접 목적격인 피사동자와 피사동체 둘 다 제시되고 있다. 이렇듯, 사동사는 사동사로 바뀌 주는 원래의 동사나 형용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은 ‘하게 하다’라는 구성요소이다. 이는 곧 ‘사동자의 행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의 ‘사동자의 행위’로 나타난다.

- (7) 내가 물을 끓인다.
- (8) 오빠가 여동생을 울렸다.

(7)에서 사동자의 행위는 사동자가 직접 행동을 하여 피사동자의 행위를 바꾸는 것이고, (8)에서 사동자의 행위는 사동자가 피사동자로 하여금 어떤 동작을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사동자의 행위는 사동문에서 꼭 나타나야 하는 반면 피사동자의 행위

는 꼭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한국어 사동 표현의 유형

2.2.1 접미사 사동

접미사 사동은 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추, -구’ 등 일부 형용사, 자동사 및 타동사 어근에 붙어 이루어진 사동형을 가리킨다. 다음의 구체적 예를 살펴해보도록 하자.

일부 형용사 어근 뒤에 접미사를 붙이는 경우:

좁다 - 좁히다

넓다 - 넓히다

높다 - 높이다

낮다 - 낮추다

일부 자동사 어근 뒤에 접미사를 붙이는 경우:

웃다 - 웃기다

울다 - 울리다

자다 - 재우다

눕다 - 눕히다

붙다 - 붙이다

앉다 - 앉히다

일부 타동사 어근에 접미사를 붙이는 경우:

먹다 - 먹이다

알다 - 알리다

입다 - 입히다

안다 - 안기다

감다 - 감기다

여기서 외국인 학습자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떤 단어의 어근 뒤에 ‘이’를 붙이느냐, 어떤 단어의 어근 뒤에 ‘리’를 붙이느냐 어떤 단어의 어근 뒤에 ‘히’를 붙이느냐에 관한 문제이다. 단어와 사동접미사와의 결합은 단어 어간의 받침이나 마지막 부분이 많이 관련되어 있다. 단어 어간과 사동 접미사 간의 선택 관계를 밝히기 위해 먼저 사동 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추, -구’ 등과 결합할 수 있는 단어들을 가능한 한 많이 찾아내고 찾아낸 단어들을 살펴봄으로써 규칙을 추출해야 할 것 같다. 따라서 다음은 단어 어간과 사동접미사 간의 결합 상황을 선행연구를 통해 정리를 하였다. 정리한 결과는 다음<표 1>과 같다.

<표 1> 사동 접미사와 결합한 단어들

접미사	능동사 - 사동사
이	보다 - 보이다, 끓다 - 끓이다, 누다 - 누이다, 눅다 - 눅이다, 죽다 - 죽이다, 속다 - 속이다, 숙다 - 숙이다, 먹다 - 먹이다, 높다 - 높이다, 붙다 - 붙이다, 삭다 - 삭이다, 썩다 - 썩이다, 깎다 - 깎이다, 절다 - 절이다, 줄다 - 줄이다, 기울다 - 기울이다, 길들다 - 길들이다, 덧붙다 - 덧붙이다
히	눅다 - 눅히다, 잡다 - 잡히다, 접다 - 접히다, 좁다 - 좁히다, 넓다 - 넓히다, 엮다 - 엮히다, 맞다 - 맞히다, 앓다 - 앓히다, 엮다 - 엮히다, 입다 - 입히다, 굳다 - 굳히다, 묻다 - 묻히다, 얹다 - 얹히다, 식다 - 식히다, 익다 - 익히다, 밝다 - 밝히다, 붙다 - 붙히다, 괴롭다 - 괴롭히다, 더럽다 - 더럽히다, 어지럽다 - 어지럽히다, 가라앉다 - 가라앉히다
리	날다 - 날리다, 듣다 - 들리다, 놀다 - 놀리다, 널다 - 널리다, 놀다 - 놀리다, 마르다 - 말리다, 물다 - 물리다, 살다 - 살리다, 신다 - 실리다, 바르다 - 발리다, 분다 - 불리다, 알다 - 알리다, 얼다 - 얼리다, 울다 - 울리다, 오르다 - 올리다, 걷다 - 걸리다, 구르다 - 굴리다, 돌다 - 돌리다, 되살다 - 되살리다
기	벗다 - 벗기다, 감다 - 감기다, 빗다 - 빗기다, 신다 - 신기다, 찢다 -

	씻기다, 뜯다 - 뜯기다, 굶다 - 굶기다, 읊다 - 읊기다, 넘다 - 넘기다, 숨다 - 숨기다, 말다 - 말기다, 웃다 - 웃기다, 남다 - 남기다, 안다 - 안기다, 튀다 - 튀기다
우	깨다 - 깨우다, 피다 - 피우다, 메다 - 메우다, 비다 - 비우다, 새다 - 새우다, 차다 - 채우다, 쓰다 - 씌우다, 뜨다 - 띄우다, 끼다 - 끼우다, 돋다 - 돋우다, 지다 - 지우다, 살찌다 - 살찌우다
추	눅다 - 눅추다, 낫다 - 낫추다, 갓다 - 갓추다, 들다 - 들추다
구	돌다 - 돌구다, 일다 - 일구다, 달다 - 달구다
뜨리	깨다 - 깨뜨리다, 퍼다 - 퍼뜨리다, 넘다 - 넘어뜨리다

위와 같은 파생 접미사에 의한 사동 표현은 동사나 형용사에 사동 접사 ‘-이, -히, -리, -기, -우, -추, -구’등이 결합하여 실현된다. 파생적 사동 표현은 사동 표현의 길이에 따라 장형 사동(長形使動)과 구별하여 단형 사동(短形使動)이라고도 한다³⁾. 그러나 단형 사동은 사동사 파생을 위한 접미사와의 결합이 규칙적이지 못하고 파생에 참여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동사들이 많아 통사적인 사동에 비해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으로 단형사동의 사동사 제약을 살펴보면, 사동 접미사가 모든 동사나 형용사에 붙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붙을 수 없는 동사도 있는데 구체적인 분류를 보면 다음의 <표 2>과 같다.

<표 2> 사동사 전환 불가 동사

3) 최해주(2007: 303)에서는 한국어의 사동 접사는 위에서 제시한 사동 접사 외에도 드물지만, ‘-시-, -으키-, -이키-, -애-’와 같은 특이한 사동 접사가 동사나 형용사에 붙는 경우가 있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ㄱ: ‘-시-’ : 젓다 → 적시다

ㄴ: ‘-으키-’ : 일다 → 일으키다

ㄷ: ‘-이키-’ : 돌다 → 돌이키다

ㄹ: ‘-애-’ : 없다 → 없애다

그런데 ‘-시-, -으키-, -이키-, -애-’와 같은 경우에는 접미사 극히 특별한 용언에만 실현되어 이들 대응상의 경우에는 각각 어휘가 하나씩뿐이다. 이는 적절한 설명으로 학습자의 부담을 줄이는 입장에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접사 형태들은 별도의 어휘로 처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런 관점에 따르면 이들은 연구 대상으로 다루지 않고 제외할 것이다.

종류	예
수여동사	주다, 드리다, 바치다 등
수혜동사	얻다, 받다, 잃다, 돕다 등
대칭동사	만나다, 닮다, 싸우다 등
경험동사	배우다, 느끼다, 바라다 등
어간이 모음 ‘ㅣ’로 끝나는 동사	이기다, 던지다, 지키다 등
‘-하다’가 붙는 동사	노래하다, 도착하다, 출발하다 등

(9) ㄱ. 학생이 집에 간다.

ㄴ. 선생님께서 학생을 집에 가이신다. (X)

위의 예문에서 (9ㄴ)의 ‘가다’처럼 사동 접미사를 붙일 수 없는 용언을 『한국어문법 1』에서는 수여동사, 수혜동사, 대칭동사, 경험동사, 어간이 모음 ‘ㅣ’로 끝나는 동사, ‘하다’가 붙는 동사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사동 접미사가 결합될 수 있는 말과 그렇지 못한 말을 구분하는 뚜렷한 기준은 없으므로 위의 규칙을 사동사 전반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고, 이러한 세분화 된 기술은, 학습대상이 외국인임을 고려할 때, 문법의 규칙성을 부여하여 사동법 학습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의도를 지닌 제시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학습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2.2 ‘시키다’ 사동

앞에서 언급한 접미사 사동사에 의한 사동 표현 이외에 파생적 사동 표현 중의 하나인 ‘체언+시키다’에 의해 실현된 사동 표현이 존재한다. 이 경우에는 ‘체언+하다’로 된 동사에서 ‘체언’에 사동 접사인 ‘-시키-’를 붙여서 ‘체언+시키다’의 형식으로 사동사가 될 수 있다. 먼저 ‘시키다’ 사동문의 적용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시키다’와 어울려 사용하는 어휘의 분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한자어+하다’ 유형의 단어 뒤에 붙어 쓰인다. 아래는 ‘한자어+하다’ 유형의 단어들이다.

공부(工夫)하다 - 공부시키다

발전(發展)하다 - 발전시키다

인식(認識)하다 - 인식시키다
해산(解散)하다 - 해산시키다
약화(弱化)하다 - 약화시키다
무장(武裝)하다 - 무장시키다
발생(發生)하다 - 발생시키다
증가(增加)하다 - 증가시키다
추진(推進)하다 - 추진시키다

둘째, ‘고유명사+를/을 하다’ 구조에서 ‘하다’를 ‘시키다’로 대체하여 사동 표현이 이루어진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자.

일을 하다 - 일시키다
말을 하다 - 말시키다
노래를 하다 - 노래시키다

일반적으로 ‘시키다’는 원래 주로 용언의 ‘하다’가 쓰인 서술어에서 그 ‘하다’를 ‘시키다’로 바꾸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모든 ‘하다’동사를 다 ‘시키다’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깨끗하다, 친절하다, 똑똑하다’와 같은 형용사 뒤에 ‘하다’가 결합되어 있지만 ‘시키다’로 바꾸어서 사동 표현을 이룰 수 없다. 이런 점에서는 서술어 ‘시키다’에 의한 사동 표현은 그 쓰임이 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2.3 ‘-게 하다’ 사동

‘-게 하다’ 유형의 사동은 사동 표현의 서술어인 ‘-게 하다’가 용언의 어간에 붙어 이루어지며 접미사동이 불가능한 동사에서도 파생이 가능하므로 단형 사동보다 더 생산적이다. 또한 단형 사동이 가능한 동사에서도 사용되며, 형태적 사동이 실현된 사동사에도 사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사동 실현 방법을 피사동주의 격 실현의 측면에서 볼 때 단형 사동에서는 대체적으로 본동사의 특징에 따라 피사동주에 ‘을/를’ 또는 ‘에게’, ‘한테’의 격조사를 갖

고 장형 사동은 이에 더하여 ‘이/가’와 같은 주격조사와 ‘-(으)로 하여금’과 같은 부사격 조사도 사용이 가능하다.

동사적 사동 표현의 경우, 피사동주의 격 표지에 따라 주격사동, 여격사동, 대격사동, ‘-로 하여금’ 사동 등으로, 연결어미의 종류에 따라 ‘-게’ 사동, ‘-도록’ 사동으로, 사동사의 종류에 따라 각각 ‘하다’ 사동, ‘만들다’ 사동 등으로 세분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동사로 ‘하다’를, 연결어미 ‘게’를 취하고자 한다⁴⁾.

‘-게 하다’ 사동 표현의 형식적 특징을 살펴보면 ‘-게 하다’ 사동 표현은 주격 사동, 여격 사동, 대격 사동을 막론하고 두 개의 동사에 의해 사동 표현이 형성되므로 대체적으로 통사적 사동 표현의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형태적 길이에 따라 장형 사동이라고도 불린다. 한국어에서 파생적 사동 표현에 비하여 ‘-게 하다’에 의해 이루어진 사동문은 훨씬 생산적인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아래의 예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10) ㄱ. 엄마는 나를 집에 가이었다. (X)

ㄴ. 엄마는 나를 집에 가게 하셨다.

(11) ㄱ. 나는 친구에게 그 소식을 믿이다. (X)

ㄴ. 나는 친구에게 그 소식을 믿게 하였다.

위의 예문에서 (10)과 (11)에서의 ㄱ 예문은 사동 접미사가 일반 동사와 결합하여 사

4) 서정수(1996:1101~1103)에서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게 하다’ 구성에 의한 사동문 외에 ‘-게 만들다’ ‘-도록 하다’, ‘-도록 만들다’와 같은 통사적 구성에 의한 사동법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것들은 ‘-게 하다’가 아닌 형태로도 거의 동일한 사동적 의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판 형태와 관련된 제약이 필요하다. ‘-게 하다’가 순수한 사동문을 이루는 데는 셋 가지 제약을 받는다. 하나는 사동 조동사 제약, 하나는 사동 기능소 제약, 다른 하나는 피사동 동사 제약이다. 사동 조동사 제약이란 사동 보조 동사 ‘만들다’와 그 대리형 형태인 ‘하다’로 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통사적 사동문에 관한 논의에서 나오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하다’를 대표적인 사동 보조 동사로 살펴보기로 한다. 사동 기능소의 제약이란 사동 기능소 ‘-게’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게’의 자리에도 ‘도록’을 써도 비슷한 사동 기능을 나타내는 수가 있으나 ‘-게’만 사동문을 이루는 기능 형태에 보는 것이다. ‘-도록’은 접속기능소로 처리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하였다. 피사동 동사의 제약이란 ‘-게’가 접속된 용언이 원칙적으로 ‘동사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게 하다’에 의한 실현된 문장만 사동문으로 간주할 것이다.

동문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문장이며 ㄴ 예문은 ‘-게 하다’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동문이다. 이렇듯 ‘-게 하다’는 제약을 받지 않고 일반 동사와 결합하여 사동문을 이루는데 생산적이라는 특징을 볼 수 있다.

‘-게 하다’에 의한 사동문의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⁵⁾.

첫째, 능동문에서의 주어가 사동문에서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 여러 가지 문장 성분으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12) ㄱ. 아이는 소설을 읽었다.

ㄴ. 우리는 오래 기다렸다.

ㄷ. 소비자는 차를 사는 것을 자제하였다.

(13) ㄱ. 엄마는 아이에게/아이를 소설을 읽게 하셨다.

ㄴ. 그 사람은 우리를 오래 기다리게 하였다.

ㄷ. 경제 불경기는 소비자로 하여금 차를 사는 것을 자제하게 하였다.

(12)의 능동문에서는 행동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주어인 ‘아이’, ‘우리’ 및 ‘소비자’는 (13)의 사동문에서는 사역을 받는 대상으로 되어 ‘아이에게/아이를’, ‘우리를’ 및 ‘소비자로 하여금’으로 표현되고 있다.

둘째, ‘-게 하다’ 사동문에서는 이중 사동이 가능하다.

(14) 엄마는 아이한테 개에게 고기를 먹이게 하였다.

위의 사동문은 접미 사동과 ‘-게 하다’ 사동과 함께 쓰이는 문장이다. 1차 사동은 ‘먹이게 하다’는 능동사 ‘먹다’의 어간에 사동 접미사 ‘이’가 붙어 접미사동인 ‘먹이다’가 파생되고 2차 사동은 ‘먹이다’의 어간에 ‘게 하다’가 다시 붙어 ‘먹이게 하다’식의 사동문이 이루어진다.

셋째, ‘-게 하다’ 사동문은 형용사, 자동사 및 타동사와 널리 어울려 사용하여 생산적

5) 전전령(2011). 한국어 파생적 사동문의 교육에 관한 연구-중급 단계의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6

이다. ‘-게 하다’ 사동은 형용사, 자동사 및 타동사와 결합한 예문은 다음과 같다.

(15) 선생님은 학생들로 하여금 본문을 외우게 하셨다. (타동사)

(16) 엄마는 아이에게 밖에서 놀게 하였다. (자동사)

(17) 학생들은 교실을 깨끗하게 하였다. (형용사)

2.3 중국어 사동 표현의 유형

외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어를 효율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교사는 학습자들의 모국어를 알고 모국어 문법에 대한 인식과 언어사용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 이를 교육에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중국어 사동 표현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 사동 표현과 체계적인 대조를 하기 위하여 중국어의 사동 표현을 크게 ‘무표지’ 사동과 ‘유표지’ 사동⁶⁾으로 나누고 살펴보고자 한다.

2.3.1 ‘무표지’ 사동

중국어에서는 ‘무표지’ 사동이란 특별한 사동표지가 없는 사동의 유형, 즉 어휘적인 사동을 말하는데, 현대 중국어에서는 ‘무표지’ 사동의 유형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형용사, 자동사, 타동사의 겸류사(兼類詞)가 문장 속에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고, 둘째는 인과관계(因果關係)를 나타내는 복합구조의 형식이다. 아래에서는 ‘무표지’ 사동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논술상의 편의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경우는 ‘무표지’ 사동(I)이라고 하고 둘째 경우는 ‘무표지’ 사동(II)라고 하기로 한다.

첫 번째는 ‘무표지’ 사동(I)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주동사에 대응되는 사동사가 있는 경우인데 중국어에서의 ‘死’와 ‘杀’을 그 대표

6) 김윤정(1995:227)에서는 “漢語里有兩種使動句：一種是‘起因者+動詞+被使役者’這種語序構成的形式，可以叫作無標識使動句，另一種是由使動標識‘使’‘让’‘叫’構成的形式，可以叫作有標識使動句。”라고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의 견해에 따라 중국어 사동문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기 한다.

적인 예로 들 수가 있다.

(18) ㄱ. 小狗 死 了.

(강아지가 죽었다.)

ㄴ. 那个人 杀 了小狗.

(그 사람이 강아지를 죽였다.)

(18ㄴ)에서의 ‘杀’은 (18ㄱ)의 ‘死’에 대응되는 사동사라고 할 수 있다. 중국어에서의 ‘杀’은 사동 사건의 표현이 피사동과 분리되어 표현되지 않고 하나의 단어에 어우러져 표현된다. 이와 같이 중국어에서 꽤 많은 수의 사동사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중국어에서 사동성을 가지고 사동문을 이룰 수 있는 타동사들은 상당수에 이른다. 이것들은 한국어의 접미사 사동사처럼 새 타동사가 되고 사동의 의미를 표시하는 것이다.

(19) ㄱ. 学校 改善 了我们的学习环境.

(학교가 우리의 학습 환경을 좋게 만들었다.)

ㄴ. 政府 稳定 了市场价格.

(정부는 시장의 물가를 안정시켰다.)

(19)에서는 타동사 ‘改善’, ‘稳定’가 모두 사동의 기능을 가지는 단어들이다. 즉 ‘改善’과 ‘学习环境’, ‘稳定’과 ‘市场价格’의 관계는 타동사 와 목적어의 관계이다. 중국어에서는 이런 사동성을 가지고 사동문을 이룰 수 있는 타동사들은 그 수가 적지 않다⁷⁾.

다음으로 같은 형태의 낱말이 문장에 따라 주동과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이런 자동사와 형용사는 원래 목적어를 가지지 않거나 가질 수 없는 것인데 이것들이 목적어를 가지게 되면 사동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7) 呂叔湘(2005: 225~226), 『现代汉语八百词』 참조.

(20) ㄱ. 暑假的志愿者活动 丰富 了我的留学生活. (동사)

(여름방학 봉사활동은 나의 유학생생활을 풍부하게 만들었다.)

ㄴ. 我的留学生活很 丰富. (형용사)

(나의 유학생생활은 풍부하다.)

(20)에서 같은 형태의 낱말인 ‘丰富’는 (20ㄱ)에서 목적어인 ‘我的留学生活’을 가지게 되어 ‘풍부하게 만들다’라는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20ㄴ)에서 ‘丰富’는 형용사로 쓰이고 ‘풍부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둘째는 ‘무표지’ 사동(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현대 중국어에서는 형용사나 동사에 보충어가 붙여진 복합구조가 사동의 용법으로 쓰이는 것들이 있는데 ‘加/放/弄’등이 그런 예이다. ‘加/放/弄’등 단어의 뒤에 다른 자동사나 형용사를 덧붙여서 사동성을 가지고 사동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동사들은 모두 어떤 행위를 해서 사건이나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는 의미가 있다. 원인 사건과 결과 사건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들로 만든 사동문은 아래와 같다.

(21) ㄱ. 这件事 加深 了他们之间的矛盾.

(이 일은 그들 사이에 갈등을 더욱 심하게 했다.)

ㄴ. 他们 放宽 了那条路.

(그들이 그 길을 넓혔다.)

ㄷ. 孩子 弄脏 了衣服.

(아이가 옷을 더럽혔다.)

(21ㄱ)에서는 ‘加深’(심하게 하다), (21ㄴ)에서는 ‘放宽’(넓히다), (21ㄷ)에서는 ‘弄脏’(더럽히다)들이 합성 사동사로 할 수 있고 이들에 의하여 사동문이 이루어진다. 현대 중국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동사의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들은 사동의 표지를 가진 사동문의 새로운 유형으로 구별할 수 있다. 물론, 이들은 모든 형용사나 동사들과 다 결합하지 못하고 결합할 수 있어도 제약을 가진다. 예를 들면 ‘放宽’로 형

성될 수 있는데 비해서 ‘放窄’은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단어’가 다른 ‘단어’와 다시 합쳐져서 새로 되는 ‘합성어 사동사’는 ‘加/放/弄’만이 아니다. 중국어에 서는 이 세 가지의 사용빈도가 높은 것이어서 대표로 제시한 것일 뿐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어에서의 ‘무표지’ 사동은 의미에 따라 불규칙적인 사동문이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에 따라 형성된 사동문이 불규칙적이고 복잡하기도 한다.

2.3.2 ‘유표지’ 사동

현대 중국어에서는 ‘유표지’ 사동은 전치사 ‘使, 叫, 讓, 令’등을 이용하여 사동문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⁸⁾. 이외에 ‘給’과 ‘把’에 의해 실현된 사동문도 존재한다. 이런 전치사를 통해 실현된 사동문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기도 하고 사람들이 익숙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동문으로 여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使, 叫, 讓, 令, 給, 把’에 의해 실현된 문장을 모두 ‘유표지’ 사동으로 간주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중국어의 ‘유표지’ 사동은 ‘N1+사동형식표지+N2+V’의 형식을 갖는다. 이런 형식에서 사동형식표지들은 전치사로의 쓰임을 가지기 때문에 V가 문장의 서술어로 쓰인다. ‘유표지’ 사동에서 N1은 ‘사동형식표지+N2+V’의 주어이고, 사동표지로 구성된 개사구(介詞句)는 부사어로 쓰이고, V는 중심술어가 되므로 ‘N1+사동형식표지+N2+V’형식의 통사적인 구조는 ‘주어+[부사어+중심술어]’이다.

중국어 사동의 형식을 만들어내는 사동형식표지들 중에서 ‘使, 叫, 讓, 令’은 하나의 문치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사동형식표지가 가지는 의미적인 특성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유표지’ 사동의 형식과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8) 박민수(2002:20~21)에서는 “일반적으로 ‘使, 叫, 讓, 令’등의 단어는 현대 중국어에서는 독특한 유형으로 어떤 심리적인 활동을 나타내지도 않고 존재나 바람, 방향 등을 나타내지도 않으며 분명한 동작 행위를 나타내지도 않는다. 이 단어들의 의미는 모호하지만 사용범위는 정해져 있는데 주로 겹어문에서 첫 번째 술어자리에 위치하여 그 뒤에 오는 명사성 단어나 구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행위를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해도 이 단어들에 대한 품사적인 견해는 상이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動詞說, 介詞說, 虛詞說, 兼語式說등이 있다. 종합해 보면 ‘使, 叫, 讓, 令’등의 사동형식표지는 분명 “~하 게 하다”, “~하도록 만들다”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이것들은 동사가 가지는 대부분의 특징이 상실되고, 介詞(즉 전치사)의 특징과 기능이 있으므로 介詞(전치사)로 분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관점에 따라 중국어의 사동표지 ‘使, 叫, 讓, 令’등을 모두 전치사로 간주하기로 하고 살펴볼 것이다.

우선 ‘使, 叫, 讓, 令’에 의해 실현된 사동문에 대해 살펴본다. ‘使’사동문은 ‘使’는 사건 즉 ‘致使’ 사건에 치중하여, 어떤 사건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표시하므로 사람의 주관적인 의지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使’가 출현하는 사동문의 경우 주어 자리에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성 성분보다는 사물명사나 추상명사, 동사, 형용사, 동사구, 주술구(主述句), 절 등이 출현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22) ㄱ. 这次考试 使 我 提高 了韩语水平.

(N1 + ‘使’ + N2 + V)

(이 번 시험은 나의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켰다.)

ㄴ. 谦虚 使 人 进步, 骄傲 使 人 落后.

(N1 + ‘使’ + N2 + V)

(겸손은 사람을 진보하게 하고, 교만은 사람을 낙후되게 한다.)

(22ㄱ)에서 명사인 ‘这次考试’은 나의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원인이 되고, 한국어 실력을 높인 것이 이번 시험의 결과이다. (22ㄴ)에서는 ‘谦虚’과 ‘骄傲’은 사람을 진보하거나 낙후하게 만든 원이이고, ‘进步(진보)’와 ‘落后(낙후)’은 ‘谦虚(겸손)’과 ‘骄傲(교만)’의 결과가 된다.

둘째는 ‘叫’사동문이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叫’는 사역동사로 쓰여 ‘(~하도록)용인하다, 방치하다, 허용하다’ 혹은 ‘(~하도록)시키다, ~하게 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⁹⁾. 현대 중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叫’에 의한 사동문은 명령의 의미와 사건의 의미를 뜻한다. 이런 사동 구문을 ‘간접 사동’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23) ㄱ. 他的话 叫 女友很 伤心.

(N1 + ‘叫’ + N2 + V)

(그의 말은 여자 친구를 속상하게 만들었다.)

ㄴ. 老师 叫 我 去 一趟办公室.

(N1 + ‘叫’ + N2 + V)

9) 본 연구에서는 전치사 ‘使, 叫, 讓, 令, 给, 把’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해석은 『中韓大辭典』(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95)에 의하여 진행할 것이다.

(선생님께서 나를 사무실에 한 번 가게 하셨다.)

셋째는 ‘讓’에 대해 사전적인 의미에서 ‘~하도록 시키다, ~하게 하다’로 해석되고 있는데 『現代漢語虛詞例釋』에서는 ‘讓’는 ‘致使’의 의미를 표시하기도 하고, 지시의 의미나, 어떤 사람으로 어떤 일을 하게끔 파견하는 의미도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讓’사동문은 주로 허락의 의미와 사건의 원인을 표시한다고 할 수 있다.

(24) ㄱ. 妈妈 讓 我 看书.

(N1 + ‘讓’ + N2 + V)

(엄마가 나에게 책을 읽게 하셨다.)

ㄴ. 失敗 讓 他 很灰心.

(N1 + ‘讓’ + N2 + V)

(실패가 그를 낙심하게 하였다.)

(24ㄱ)에서 허락의 의미를 표현하고, (24ㄴ)에서 사건의 원인을 표시한다. 즉 그를 낙심하게 만든 원인은 ‘실패’(失敗)이다.

넷째는 ‘令’사동문을 살펴본다. ‘令’은 ‘~로 하여금, ~하게 하다, ~를 시키다’의 사전적인 의미를 나타내는데 『現代漢語虛詞例釋』에서는 “致使”, ‘使得’의 의미이며, 어떤 원인 혹은 조건의 상태를 설명하는데, 대부분 심리적인 활동이다. ‘令’뒤에 출현하는 명사 혹은 대사(代詞)는 동작 혹은 상태의 주체를 표시한다.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사람이다’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다음(25)과 같다.

(25) ㄱ. 这次考试结果 令 老师很 满意.

(N1+ ‘令’ + N2 + V)

(이번 시험 결과는 선생님을 아주 만족하게 한다.)

ㄴ. 这个消息 令 他很 兴奋.

(N1+ ‘令’ + N2 + V)

(이 소식은 그를 아주 홍분하게 하였다.)

이상은 사동의 의미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 ‘使, 叫, 讓, 令’에 의해 실현된 사동문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다음은 ‘給’, ‘把’에 의한 사동문을 살펴보도록 한다.

‘給’에 대해서는 사전에서 ‘~에게 ~를 시키다’, ‘~토록 하다’로 해석되어 있다. 『現代漢語虛詞例釋』에서는 ‘給’이 ‘容許’, ‘使令’의 의미가 있으며 대개 ‘使, 叫, 讓’와 같다고 설명한다. 현대 중국어에서는 ‘給’에 의한 사동문에서는 전치사 ‘給’의 주어는 반드시 [+유정성] 명사나 명사구만 나타나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給’에 의한 사동문은 동작의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고 환경에 따라 ‘직접 사동’의 문맥적 의미도 가지는 경향이 있다.

(26) ㄱ. 你能做到多好, 給 人們 看看.

(N1 + ‘給’ + N2 + V)

(너는 얼마나 잘 하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 줘.)

ㄴ. 那個秘密也 給 我 說說吧.

(N1 + ‘給’ + N2 + V)

(그 비밀은 나에게도 알려 줘.)

‘把’자문은 일반적으로 ‘처치(處置)’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처치’란 표준중국어문법에 서 “사람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조정되며, 취급되는지를 진술한다. 그리고 사물이 어떻게 처리되며, 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기술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把’에 의한 사동문은 ‘起因者+把+被使動者+動詞’의 구조를 가진다.

(27) ㄱ. 這件事 把 我 累壞了.

(N1 + ‘把’ + N2 + V)

(이 일이 나를 피곤하게 하였다.)

ㄴ. 我 把 門 打開了.

(N1 + ‘把’ + N2 + V)

(내가 문을 열렸다.)

(27ㄱ)에서 나를 피곤하게 만든 원인이 ‘이 일’(这件事)이다. ‘我累坏’은 이번 사건의 결과이다. (27ㄴ)에서 문은 ‘나’(我) 때문에 열렸다. ‘나’(我)는 동작인 ‘열기다’라는 단어의 주어이다. 일반적으로 ‘把’에 의한 사동문 구조에서는 동사는 목적어를 가지는 타동사에 국한된다. 이런 구문의 특징은 동사가 상태를 표시하는 동사나 형용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把’사동문에서는 서술어 자리에 존재동사, 인지 동사, 심리 동사, 이동 동사, 자동사, 상태 동사가 나타날 수 없다.

앞서 현대 중국어의 사동문에 대해 ‘무표지’ 사동과 ‘유표지’ 사동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무표지’ 사동은 두 가지를 포함하는데 하나는 형용사, 자동사, 타동사의 겹류사가 문장 속에서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복합 구조의 형식이다.

‘무표지’ 사동은 의미에 따라 불규칙적인 사동문이 이루어진다. 반면에 ‘使/叫/讓/令/給/把’를 통해 형성된 ‘유표지’ 사동은 중국 사람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인 개념이고, 표지가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식별하고 이해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2.4 한·중 사동 표현의 대조 분석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문법 규칙을 배울 때에는 학습자들은 자신의 배경지식 안에 있는 모국어 문법 범주와 연결시켜 학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조분석 연구가 전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현화 외(2003)에서는 대조분석 연구의 첫 번째 단계는 양 언어의 대응 표현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언어들 간에 같은 내용을 서로 어떻게 달리 표현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즉, 두 언어의 ‘의미적 등가’ 표현을 대조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강현화 외(2003)의 관점에 따라 한국어 사동문과 등가의 의미를 갖는 중국어 사동문을 대조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사동문을 학습할 때 차이점으로 인해 범하는 오류 발생의 원인을 찾아 사동문의 습득 및 교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한국어와 중국어 사동 표현은 실현 형태, 통사적 구조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사동문 대조를 통해 그 규칙성을 밝힌다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님을 암시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인식하며 한국어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출발하여 한국어 사동 표현에 대해 중국어 사동 표현과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길림(2007)에서 한국어 사동 표현은 중국어 사동 표현과의 대응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한국어 사동 표현이 가지는 격구조의 유형을 따라 다음(28)과 같이 나눴다¹⁰⁾. 본고에서는 이 구문 형식을 이용해 한국어와 중국어의 사동 표현의 대응관계를 검토하겠다.

- (28) 가. [NP이 NP를 V]
 나. [NP이 NP에게 NP를 V]
 다. [NP이 NP에 NP를 V]
 라. [NP이 NP를 NP로 V]
 마. [NP이 NP를 NP를 V]

2.4.1 접미사 사동과 중국어 사동의 대조

우선 한국어 중의 접미사 사동사에 의한 사동 표현이 중국어의 사동 표현 중에서 ‘무표지’ 사동이나 ‘유표지’ 사동과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검토하겠다. 다음 예를 통해 살펴보자.

- (29) ㄱ. 오빠가 노는 여동생을 울렸다.

(哥哥弄哭了正在玩的妹妹. 혹은 哥哥把正在玩的妹妹弄哭了. -‘무표지’사동문/ ‘把’사동문)

- ㄴ. 햇빛이 얼음을 녹였다.

(阳光融化了冰. 혹은 阳光把冰融化了. -‘무표지’사동문/ ‘把’사동문)

- ㄷ. 그 사람은 고양이를 죽였다.

(那个人杀死了猫. 혹은 那个人把猫杀死了. -‘무표지’사동문/ ‘把’사동문)

10) 최길림(2007) 한국어와 중국어 사동문의 대조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0) ㄱ. 그 아이가 옷을 더럽혔다.

(那个孩子弄脏了衣服. 혹은 那个孩子把衣服弄脏了. -‘무표지’사동문/ ‘把’사동문)

ㄴ. 사람들은 마을의 길을 넓혔다.

(人们加宽(弄宽)了村子里的道路. 혹은 人们把村子里的道路加宽(弄宽)了 -‘무표지’사동문/ ‘把’사동문)

(29)은 자동사로부터 파생된 접미사 사동사를 이용하여 사동문을 이루는 것이고, (30)은 형용사로부터 파생된 접미사 사동사를 이용하여 만든 사동문을 보여준 것이다. (29~30)에서 모두 ‘N1이+N2를+V’의 구조를 갖는다. 이런 구조를 갖는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은 (29~30)에서 본 듯이 중국어 ‘무표지’ 사동과 대응될 수 있고, 또한 ‘유표지’ 사동 중의 ‘把’사동문과 잘 대응될 수 있다. 그리고 (29)과 (30)에서 중국어 ‘把’사동문 보다는 일반 서술문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런 문장 구성이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N1이+N2에게+NP를+V’구조를 갖는 한국어 사동 표현은 중국어 사동 표현과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31) ㄱ.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

(妈妈喂孩子吃饭. 혹은 妈妈给孩子喂饭. -‘무표지’사동문/ ‘给’사동문)

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 범위를 알렸다.

(老师把考试范围告诉了学生. 혹은 老师告诉学生考试范围了. -‘把’사동문/ ‘무표지’사동문)

ㄷ. 친구가 나에게 여자 친구의 사진을 보여줬다.

(朋友让我看他女朋友的照片. -‘讓/叫’사동문)

(31ㄱ)의 주어인 ‘엄마’, (31ㄴ)의 주어인 ‘선생님’이 각자 ‘아이에게’와 ‘학생들에게’ 직접 행동을 할 때, 중국어 사동 의미를 가진 ‘讓/叫’사동문으로 표현할 수 없고, 일반 서술문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당하다. 반면에 (31ㄷ)에서와 같은 사동문의 주어가 간접 행동을 할 때 중국어 ‘讓/叫’사동문으로 표현할 수 있다. 요컨대 ‘N1이+N2에게+NP를

+V'구조를 갖는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은 이중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구조를 갖는 사동문의 주어가 간접 행동과 직접 행동을 나타낼 때 중국어로 다르게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구조를 갖는 사동문의 주어가 간접 행동을 할 때 중국어 '讓/叫' 사동문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직접 행동을 할 때는 중국어 '讓/叫' 사동문으로 표현할 수 없고 일반 서술문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당하다.

(32) ㄱ. 아빠가 벽에 우리 가족 사진을 붙였다.

(爸爸把全家福贴在墙上. - '把'사동문)

ㄴ. 여동생이 침대 밑에 장난감을 잘 숨겼어요.

(妹妹常把玩具藏在床下. - '把'사동문)

ㄷ. 친구가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朋友把车停在地下停车场. - '把'사동문)

(33) ㄱ. 엄마가 의자에 아아를 앉혔어요.

(妈妈讓/叫小孩坐在椅子上. - '讓/叫'사동문)

ㄴ. 언니가 내 침대에 조카를 재웠어요.

(姐姐讓/叫侄子睡在我床上. - '讓/叫'사동문)

ㄷ. 친구가 편지 봉투에 우표를 붙여요.

(朋友给信上贴邮票. - '给'사동문)

(32~33)에서 보듯이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에서 'N1이+NP에+N2를+V'구조를 갖는 사동문은 중국어 '무표지' 사동과 대응될 수 없고 '使/叫/讓/给/把'등 '유표지' 사동과 잘 대응될 수 있다.

(34) ㄱ. 인부들이 담을 돌로 높였다.

(工人用石头把墙加高了. - '把'사동문)

ㄴ. 내가 어두운 지하실을 촛불로 밝혔다.

(我用蜡烛把黑暗的地下室照亮了. - '把'사동문)

ㄷ. 친구가 책상을 교실로 옮겼다.

(朋友把书桌搬到教室去了. -‘把’사동문)

(34)에서는 모두 ‘N1이+N2를+NP로+V’의 형식을 가지는 사동문이다. 이런 사동문은 중국어로 표현할 때 대부분 ‘把’사동문과 대응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어 사동문으로 표현할 때 ‘NP로’는 중국어 구문에서 ‘장소’나 ‘도구’나 ‘방향’과 대응된다.

위에 제시된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 외에 ‘N1이+N2를+NP를+V’구조를 갖는 사동문도 존재한다. 이런 구문에서 서술어인 접미사 사동사가 두 자리의 타동사이다.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35) ㄱ. 엄마가 아침마다 아이를 얼굴을 씻겨요.

(妈妈每天早晨让/叫孩子洗脸. -‘讓/叫’사동문)

ㄴ. 그가 전사한 전우의 눈을 감겼다.

(他把牺牲的战友的眼睛合上了. -‘把’사동문)

ㄷ. 언니가 항상 밤 9시에 조카를 잠을 재워요.

(姐姐常常晚上9点让/叫侄子睡觉. -‘讓/叫’사동문)

(35)에서와 같은 구조를 갖는 한국어 사동문이 중국어 ‘유표지’ 사동 중에 ‘讓’사동문, ‘叫’사동문, ‘把’사동문과 대응되고 ‘使/给’사동문과 잘 대응되지 못한다. ‘무표지’ 사동과도 대응되지 못한다.

지금까지 한국어 사동사에 의한 접미사 사동 표현은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결과는 접미사동사에 의한 사동 표현은 일정한 중국어 문장 유형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국어의 접미사 사동 표현은 모두 중국어 ‘把’사동문으로 표현할 수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그 중 일부만 ‘把’사동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어 접미사 사동 표현은 중국어 사동 표현과 대응되는 관계를 정리한 결과는 다음<표 3>과 같다.

<표 3> 한국어 접미사 사동과 중국어 사동의 대조

한국어 파생적 사동		대응된 중국어 사동
사동	N1이+N2를+V	‘무표지’사동문, ‘把’사동문
접미사에 의한	N1이+N2에게+NP를+V	‘叫/讓’사동문, ‘무표지’사동문
	N1이+NP에+N2를+V	‘使, 叫, 讓, 给, 把’ 사동문
의한	N1이+N2를+NP로+V	‘把’사동문
사동문	N1이+N2를+NP를+V	‘叫/讓/把’사동문

2.4.2 ‘시키다’ 사동과 중국어 사동의 대조

다음은 ‘체언+시키다’에 의한 사동 표현이 중국어의 사동 표현과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살펴보겠다.

(36) ㄱ. 선생님의 질문이 학생들을 긴장시켰다.

(老师的提问讓/叫/令学生们很紧张. - ‘讓/叫/令’사동문)

ㄴ. 교관이 우리를 해산시켰다.

(教官讓/叫/令我们解散. - ‘讓/叫/令’사동문)

ㄷ. 선생이 학생에게 글쓰기를 연습시켰다.

(老师讓/叫/令学生练习写作文. - ‘讓/叫/令’사동문)

(36)에서 ‘시키다’에 의한 사동 표현은 중국어의 ‘讓, 叫, 令’에 의한 ‘유표지’ 사동과 대응하여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대응되면 서술어에 있어서 제약을 필요하다. 즉, 중국어의 ‘讓/叫/令’사동문에서 중심서술어가 반드시 자동사만 나타나야 한다. (36ㄱ)의 ‘긴장(하다)’(紧张), (36ㄴ)의 ‘해산(하다)’(解散)은 그런 예이다. (36ㄷ)의 경우 ‘시키다’에 의한 사동문에서 ‘글쓰기’라는 ‘목표’가 나타나기 때문에 중국어의 ‘使’사동문과도 대응이 안 되고, ‘讓/叫/令’사동문과 대응하면 더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시키다’에 의한 사동문에서 행위자가 ‘사건’이나 ‘사물’로 나타나거나 서술어의 자리에서 타동사가 나타나야만 중국어로 번역될 때 ‘使’사동문과 대응된다.

2.4.3 ‘-게 하다’ 사동과 중국어 사동의 대조

한국어에서 어휘적 사동 표현의 의미와 달리 ‘-게 하다’에 의한 통사적 사동 표현의 의미는 간접 사동의 뜻만 표현한다. 즉 사동문의 행위자가 실질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피행위자가 행위를 한다. 이런 사동문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중국어와의 대조를 살펴보겠다.

(37) ㄱ. 너는 왜 부모님을 힘들게 해요?

(你为什么讓/叫父母那么辛苦呢? -‘讓/叫’사동문)

ㄴ. 엄마가 아이를 자기 방 안에서 놀게 하였다.

(妈妈讓/叫小孩在自己的房间玩. -‘讓/叫’사동문)

ㄷ. 그의 맹활약은 감독님을 안심하게 하였다.

(他的活跃表现讓/叫/使教练很放心. -‘讓/叫/使’사동문)

(37)에서 통사적 사동문은 중국어 사동문으로 정연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중국어 사동문으로 표현할 때 ‘讓’, ‘叫’만 아니라 ‘使’로 구성된 사동문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게 하다’에 의한 사동 표현을 중국어로 표현할 때 모두 사동 의미를 가지는 ‘讓’과 같은 전치사로 구성된 사동문으로 표현할 수 있다. ‘-게 하다’ 사동 표현은 중국어 사동 표현과 정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

위에서 분석한 결과를 다시 종합해 보면, 한국어 사동 표현과 중국어 사동 표현을 대응함에 있어서 정연하게 대응되는 것도 있고, 대응되지 않는 것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대응함에 있어서 한국어 사동 표현이 갖는 구조에 따라 중국어 사동 표현으로 표현할 때 표현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어 접미사 사동 표현은 한 단어로 사동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동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비해 중국어 사동 표현으로 표현할 때 대부분이 중국어의 전치사 ‘使, 叫, 讓, 令, 给, 把’를 이용해서 실현된 ‘유표지’ 문장으로 표현된다. 물론 ‘穩定’, ‘改善’과 같은 사동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있으나, 이들이 사동사로 받아들여지는 중국 사람의 수보다는 일반 단어로 인식하는 사람은 훨씬 더 많다. 반면에 중국어의 ‘무표지’ 사동은 한국어의 사동 표현과 대응될 때 대부분이 한국어의 통사적 사동 표현과 대응된다. 이

런 대응 상의 차이점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사동 표현을 이해하고 습득할 때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III. 한국어 교재의 사동 표현 분석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들이 학습하는 내용을 가장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교재이다. 대부분의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는 교재를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한다. 한국어 교수 내용은 사용하는 교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존 교재들의 내용과 구성 방식을 검토하면 한국어 교육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에게는 학습 내용과 방향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교재 분석은 한국어 교육 실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사동 표현에 대한 기술을 정리해 보고 한국어 교재에서 분석한 결과는 보다 효과적인 사동표현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한국어 교재 6 가지 총 7권을 뽑아 각 교재들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이 교재들은 모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 학습자를 위해 나온 통합교재이면서도 사동 표현이 제시된 단계가 대부분은 중급 단계에서 고급 단계로 동일한 것이고, 이것들은 다른 교재보다 한국 내에서 중국인이 가장 많은 학교의 교재이기 때문이다. 교재는 다음 <표 4>과 같다.

<표 4> 분석 대상 교재

<재미있는 한국어4>,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2010), 교보문고. <연세 한국어3-1, 3-2>,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07), 연세대학교 출판부. <한국어 고급2>,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2007), 경희대학교 출판국. <서강 한국어5A>,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2007), 도서출판 하우. <이화 한국어3-1>,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11),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한국어2> 北京大学朝鲜文化研究所(2005), 民族出版社.

3.1 교재 분석의 실제

현재 한국 서울 소재 대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 중 6권과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기관 교재 1권 총 7권을 대상으로 교재에 제시된 사동 표현에 대해 분석을 하여 각 교재의 장·단점을 밝히고 교육해야 할 내용을 선정할 것이다.

3.1.1 고려대학교 <재미있는 한국어4>

고려대학교에서 출판된 <재미있는 한국어>교재는 전반적으로 문법, 어휘, 과제를 통합하여 이루어졌으며 형태 및 의미에 초점을 두고 과제 활동 수행을 통하여 유의적인 연습으로 문법을 강화하고 있다. <재미있는 한국어4>에서 한국어 사동 표현에 관한 제시 방법은 다음<그림 1, 2, 3>과 같다.

<그림 1>

3 Causative expression

- Causative expression refers to an agent causing or forcing people, animals, things to perform an action or to be in a certain condition.

아이가 옷을 입었다. ➡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 There are two ways of causative expression, [Affix causative rule] and [-게 하다 causative rule].

3-1 Affix causative rule

- Causative affixes -이-, -히-, -리-, -기-, -우-, -구-, -추- are attached to the part of the intransitive, transitive and adjective. There is no regular pattern.
- Verb examples

끓이다, 눅이다, 속이다, 죽이다, 먹이다, 보이다, 높이다
놓이다, 앉히다, 익히다, 업히다, 입히다, 임히다, 잡히다, 넓히다, 좁히다, 밝히다
날리다, 돌리다, 살리다, 놀리다, 얼리다, 울리다, 알리다, 들리다, 멀리다, 물리다
남기다, 웃기다, 숨기다, 벗기다, 감기다, 맡기다, 안기다, 신기다, 찢기다
비우다, 새우다, 피우다, 깨우다, 지우다(짐을 지우다), 키우다, 돌우다
돌구다(안경의 도수를 돌구다), 솟구다
낮추다, 늦추다

<그림 2>

3-2 -게 하다 Causative rule

- The ending -게 is first attached to the predicate of the sentence with a main verb and is followed by an auxiliary verb 하다. At this moment 만들다, 시키다 can be used instead of the auxiliary verb 하다. -게 하다 causative rule has a much wider range of usage than that of the affix causative rule.

Verb examples

가게 하다, 오게 하다, 던지게 하다, 만지게 하다, 공부하게 하다, 운동하게 하다, 주게 하다, 받게 하다, 만나게 하다, 싸우게 하다

- (1) 가: 민지가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것 같지 않아요?
나: 좀 일찍 들어오게 해야겠네요.
- (2) 가: 제발 하리 씨와 다시 만나게 해 주세요.
나: 그것만은 절대 허락할 수가 없네. 이만 돌아가게.
- (3) 가: 이 시계 왜 이래요?
나: 아까 애들이 밟아서 못 쓰게 만들어 버렸어.
- (4) 가: 영수가 책을 너무 안 읽네요. 이제부터는 한 달에 두 권씩은
나: 그렇게 하면 더 안 읽을 것 같은데요.

<그림 3>

7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보기 **바지, 허리가 너무 크다 / 허리, 졸다, 입다.**

가: 이 바지 말이야, 허리가 너무 크네.
나: 그러면 허리를 졸인 후에 입어.

- 치마, 길이가 너무 짧다 / 길이, 늘다, 입다
- 의자, 너무 높다 / 높이, 낮다, 사용하다
- 바지, 여기에 구멍이 났다 / 천, 붙다, 입다
- 고기, 조금 덜 익었다 / 고기, 익다, 먹다
- 문, 잘 안 열리다 / 손잡이, 돌다, 밀어 보다

사동 어휘 Causative Vocabulary

줄이다 to shorten/to decrease
붙이다 to attach/to paste
녹이다 to melt
먹이다 to feed
익히다 to ripen/to cook
입히다 to dress/to put on
밝히다 to reveal
늘리다 to lengthen
돌리다 to turn
알리다 to let it be known
울리다 to make someone cry
숨기다 to hide
남기다 to leave
깨우다 to wake someone up
비우다 to empty
낮추다 to lower
늦추다 to postpone

8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보기 **밥을 먹다**

가: 아이가 밥을 먹어요.
나: 어머니가 아이에게 밥을 먹게 해요.

-  옷을 입다
-  신발을 신다
-  얼굴을 씻다
-  잠을 들다
-  욕다
-  책을 읽다

고려대학교 <재미있는 한국어4>에서 나온 한국어 사동 표현의 제시 방법을 보면 한국어 접미사 사동 표현 및 ‘-게 하다’ 사동 표현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림과 같이 재미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키다’로 이루어진 사동 표현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재미있는 한국어1>에서 ‘시키다’라는 어휘로만 제시 하고 있다. 또한 간단하게 어휘적으로만 제시해주고 문법을 설명한 뒤에 연습 활동 또한 많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계적 연습과 유의적 연습을 통하여 학습자가 목표 문법을 정확하게 파악하였는지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다. 고려대 교재의 한국어 사동 표현의 제시 상황은 다음 <표 5>과 같다.

<표 5> 고려대 <재미있는 한국어4>에서 사동 표현 제시 상황

사동 표현 유형	제시 특징
‘-이/히/리/기/우/구/추-’ 접미사 사동	그림과 같은 재미있는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 연습은 부족함.
‘-게 하다’ 사동	기계적 연습만 있고 유의적 연습이 없음.
‘시키다’ 사동	어휘로만 제시.

고려대학교 교재의 한국어 사동 표현의 제시 특징 중의 하나는 접미사를 많이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학습자의 어휘 암기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접미사 사동 표현과 ‘-게 하다’ 사동 표현을 비교하여 교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사동 표현의 교수 지도안에서는 한국어 접미사 사동 표현, ‘-게 하다’ 사동 표현과 중국어에서의 두 가지 사동 표현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제시하고 통사적 의미적 특징을 같이 설명하며 중국어 사동 표현과의 차이를 밝히면 좋을 것이다.

3.1.2 연세대학교 <연세 한국어3-1, 3-2>

연세대학교 교재인 <연세 한국어>은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교포 성인 학습자를

위한 중급 단계의 책으로 내용은 총 10개의 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과는 5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교육 방안 연구이므로 연세대학교 교재 <연세 한국어3-1, 3-2> 이 두 권의 중국어판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살펴보고자 한다. <연세 한국어3-1, 3-2>에서 한국어 사동 표현에 관한 제시 방법은 다음<그림 4, 5, 6, 7>과 같다.

<그림 4>

02 사동 使动

韩语中, 在动作动词后加 “이, 히, 리, 기, 우, 추” 等, 则表示要求或命令他人做某事, 从而使人或动物行动起来或达到某种状态。

[사동]			
보다 - 보이다	먹다 - 먹히다	죽다 - 죽이다	끓다 - 끓이다
앉다 - 앉히다	읽다 - 읽히다	입다 - 입히다	눕다 - 눕히다
살다 - 살리다	알다 - 알리다	울다 - 울리다	듣다 - 들리다
웃다 - 웃기다	벗다 - 벗기다	남다 - 남기다	숨다 - 숨기다
자다 - 재우다	타다 - 태우다	깨다 - 깨우다	서다 - 세우다
낮다 - 낮추다	늦다 - 늦추다	맞다 - 맞추다	말다 - 말기다

• 아저씨, 생일카드 좀 보여 주세요.	大叔, 给我看一下生日贺卡。
• 어머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힌다.	妈妈给小孩儿穿衣服。
• 반 친구들 모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我要将这个事实告诉给全班同学。
• 부장이 나에게 그 일을 맡겼다.	部长将那件事交给我处理。
• 아침 6시에 깨워 주세요.	请早上六点叫醒我。

<그림 5>

사동

02 빈 칸에 알맞은 동사의 형태를 써서 이야기를 완성하십시오.

약속이 있어서 하숙집 아줌마에게 일찍 어/아/여 달라고 부탁했지만
 (깨다)
 아파서 일어날 수 없었다. 아줌마는 죽을 어/아/여 내 방에 가지
 (풀다)
 고 오셨다. 아줌마는 아플 때는 더 잘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죽을 어/아/여
 (먹다)
 주셨다. 갑자기 고향에 계신 어머니 생각이 났다. 어렸을 때 나는 자주 아
 췄다. 열이 많이 나면 우리 어머니는 내 옷을 어/아/여 고 찬 수건으로 몸을 닦아
 (벗다)
 주셨다. 열이 좀 내리면 옷을 어/아/여 고 따뜻한 수프를 어/아/여 주
 (입다) (먹다)
 셴다. 그리고는 엄마 품에 꼭 안아서 어/아/여 주셨다. 어머니 생각에 눈
 (자다)
 물이 났다.

<그림 6>

02 -게 하다

表示让别人做某事或使其达到某种状态时使用。用在动作动词词干后。

- 그 사람은 항상 나를 화나게 한다. 那人常常让我生气。
- 친구를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미안했다. 因为让朋友久等了而觉得不好意思。
- 어렸을 때 어머니는 텔레비전을 가까이에서 못 보게 하셨다. 小时候，妈妈不让近距离看电视。
- 할머니가 아이에게 혼자 옷을 입게 했다. 奶奶让孩子自己穿衣服。

〈그림 7〉

02

-게 하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여러분의 어머니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게 하셨습니까? 또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다음 표를 채우고 문장을 만드십시오.

1)	어머니가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은 무엇입니까?	사탕
2)	꼭 먹으라고 한 음식은 무엇입니까?	
3)	혼자서 가지 말라고 한 곳은 어디입니까?	
4)	하지 말라고 한 일은 무엇입니까?	

1) 어머니는 나한테 사탕을 먹지 못하게 하셨다.

2) _____

3) _____

4) _____

연세대학교 〈연세 한국어3-1, 3-2〉의 한국어 사동 표현의 제시 방법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어 접미사 사동 표현 및 ‘-게 하다’ 사동 표현만 제시하고 있다. ‘시키다’로 이루어진 사동 표현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연세 한국어1-1〉에서 ‘시키다’라는 어휘로만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이 교재에서 제시된 사동사 어휘 중에 사동 접사 ‘구’에 의해 형성된 사동사를 제외한 것도 특징이다. 이 교재는 중국어판이므로 문법 설명을 중국어로 제시되어 있고 예문도 중국어로 번역되었다. ‘-게 하다’ 사동 표현이 제시되어 있는데 단지 문법 연습으로 제시되었고, 사동 표현의 의미, 형태를 거의 나타내고 있지 않다. 그리고 사용에서도 사동 표현을 이용하여 유의적인 연습을 하거나 강화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교재의 장점은 접미사 사동 표현을 제시한 후 유의적인 연습을 이용하여 학습자의 학습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세대 교재의 한국어 사동 표현의 제시 상황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연세대 〈연세 한국어3-1, 3-2〉에서 사동 표현 제시 상황

사동 표현 유형	제시 특징
‘-이/히/리/기/우/구/추-’ 접미사 사	사동 접사 ‘구’를 제외함.

동	문법 설명을 중국어로 번역하고 제시하여 기계적, 유의적 연습을 이용하는 방법.
‘-게 하다’ 사동	질문 방식으로 사동 표현을 연습하는 방법. 연습은 부족함.
‘시키다’ 사동	어휘로만 제시.

연세대학교 교재에서처럼 접미사 사동 표현과 ‘-게 하다’ 사동 표현은 특징적으로 많은 연관성이 있으나 서로 분리하여 교육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한국어 접미사 사동 표현과 통사적 ‘-게 하다’ 사동 표현은 많은 연관성을 갖고 있으나 교재 내에서는 이러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사동 표현 교수 지도안을 모색하려면 한국어 사동 표현간의 연관성뿐만 아니라 한국어 사동 표현과 중국어 사동 표현 간의 대응관계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1.3 경희대학교 <한국어 고급2>

경희대학교 <한국어 고급>은 고급 과정이 한국어 학습의 최종 단계임을 고려하여 문법을 범주 중심으로 구성하고, 초·중급에서 배운 문법과 연관하여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이 교재의 특징이다. <한국어 고급2>에서는 제1과 사동 표현을 단순하고 간단하게 제시하여 구체적인 연습과 사용 활동이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 고급2>교재에서 제시된 한국어 사동 표현은 다음 <그림 8, 9>와 같다.

〈그림 8〉

문법

* 사동 표현
* 결과 표현

① 다음과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1	낮에는 공부를 안 하고 밤에만 간신히 책상에 앉는다.	낮에 흥미 있는 과목을 공부하게 해야지요.
2	밤마다 인터넷을 하느라고 늦게 자고 아침이면 못 일어난다.	
3	나중에 어른이 되면 의사가 되겠다고 한다. 하지만 공부하는 것은 너무나 싫어한다.	

②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문맥에 맞게 쓰십시오.

아이들이 가정에서 꾸준히 공부할 수 있게 하려면 먼저 가족이 함께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공부하는 모습을 아이들이도 공부를 좋아하게 됩니다. 또, 아이들이 자기 일을 스스로 할 수 있게 어릴 때부터 교육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크면 혼자서 옷을 챙겨 머리도 습관을 갖게 하십시오. 아이가 혼자 음식을 옷에 음식물을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야단치지 말고 칭찬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립심이 강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자립심이 강한 사람으로 어릴 때부터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를 주어야 합니다.

〈보기〉	보다	보이다	먹다	먹이다	죽다	죽이다
	문다	문히다	입다	입히다	넙다	넙히다
	들다	들리다	얼다	얼리다	알다	알리다
	말다	말기다	빋다	빋기다	벋다	벋기다
	새다	새우다	크다	키우다	자다	재우다

③ 밑줄 친 부분의 공통점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십시오.

고객이 먼저 와서 기다리지 않게 항상 약속 시간보다 먼저 가서 기다립니다.

〈그림 9〉

-게

‘-게’ 앞에 오는 행위가 뒤에 오는 내용의 결과, 목표, 조건을 나타낸다.

집에 가지고 가다가 국물이 새지 않게 잘 싸 주세요.

부모님이 여행에서 돌아오셔서 좋아하시게 집안을 깨끗이 청소해 놓자.

화초가 병들지 않게 미리 영양제를 주어야겠어요.

경희대학교 〈한국어 고급2〉한국어 교재의 사동 표현은 역시 접미사 사동 표현 및 ‘-게 하다’ 사동 표현만 제시하고 있고 ‘시키다’ 사동 표현에 대한 언급이 없다. 경희대학교 〈한국어 초급1〉에서 ‘시키다’라는 어휘로만 제시되어 있다. 접미사 사동 표현에 대

한 문법 설명이 없고 문형만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게 하다’ 사동 표현은 너무 간단하게 언급해 놓고 아무런 연습이나 활동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경희대 교재의 한국어 사동 표현의 제시 상황은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경희대 <한국어 고급2>에서 사동 표현 제시 상황

사동 표현 유형	제시 특징
‘-이/히/리/기/우/구/추-’ 접미사 사동	문법 설명 없이 문형만 제시하여 사동문을 만들어 연습하는 방법. 연습은 매우 부족함.
‘-게 하다’ 사동	예문만 제시하여 연습은 매우 부족함.
‘시키다’ 사동	어휘로만 제시.

이 교재는 학습자로 하여금 접미사 사동 표현 및 ‘-게 하다’ 사동 표현을 명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교재에 의한 한국어 사동 표현의 교육 방법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적절하지 못하다. 교재에 실려 있는 사동 표현의 제시 방법을 보면 한국어 사동 표현은 너무 간단하게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연습 문제도 거의 없다. 한국어 교재에서는 한국어 사동 표현의 유형, 특징 등을 포함하고 다양한 연습을 통하여 한국어 사동 표현과 중국어 사동 표현의 대응관계 및 특징 차이를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

3.1.4 서강대학교 <서강 한국어5A>

<서강 한국어>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해 개발된 교재이다. 이 책은 학습자가 다양한 읽기자료를 접하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말하기 활동을 함으로써 학습자의 읽기, 말하기 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교재에서 주제에 따라 총 8개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과는 읽기I, 말하기I, 말하기II로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통된 주제 아래 읽기와 말하기 학습을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동시에 주제와 관련된 어휘와 표현, 문법도 함께 익히도록 구성하였다. <서강 한국어5A>교재에서 제시된 한국어 사동 표현은 다음 <그림 10, 11, 12, 13>와 같다.

〈그림 10〉



<그림 11>

나 다음은 동사·형용사를 사동사로 바꾼 것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고른 후 짝과 함께 읽으십시오.

-아- ☒ -하- -리- -기- -우- ☒ -추-

①

동 놀다 - 놀 **히** 다
 맞다 - 맞 **히** 다
 앉다 - 앉 **히** 다
 약다 - 약 **히** 다
 읽다 - 읽 **히** 다
 입다 - 입 **히** 다
 형 놀다 - 놀 **히** 다
 밝다 - 밝 **히** 다

②

동 날다 - 날 **다**
 놀다 - 놀 **다**
 돌다 - 돌 **다**
 마르다 - 말 **다**
 살다 - 살 **다**
 알다 - 알 **다**
 열다 - 열 **다**
 울다 - 울 **다**

③

동 깨다 - 깨 **다**
 끼다 - 끼 **다**
 서다 - 서 **다**
 자다 - 자 **다**
 타다 - 태 **다**
 형 크다 - 키 **다**

④

동 남다 - 남 **다**
 밑다 - 밑 **다**
 벗다 - 벗 **다**
 숨다 - 숨 **다**
 신다 - 신 **다**
 씻다 - 씻 **다**
 울다 - 울 **다**
 웃다 - 웃 **다**

⑤

동 낮다 - 낮 **추** 다
 늦다 - 늦 **추** 다

⑥

동 풀다 - 풀 **다**
 녹다 - 녹 **다**
 먹다 - 먹 **다**
 보다 - 보 **다**
 속다 - 속 **다**
 죽다 - 죽 **다**
 줄다 - 줄 **다**
 형 높다 - 높 **다**

연습

다 두 사람이 짝이 되어 한 사람이 동사나 형용사를 말하면 다른 사람은 사동사를 말하십시오.

익다!



익이다!

〈그림 12〉

라 빈칸에 알맞은 사동사를 넣은 후 짝과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돌 **친** 적이 있습니까?

1. 여러분은 언제 목소리를 낮 _____ ?
2. 다른 사람의 몸을 씻 _____ 준 적이 있습니까?
3. 재산을 늘 _____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4.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을 잘 웃 _____ 사람이 있습니까?
5. 냉장고에서 얼 _____ 먹으면 더 맛있는 과일은 무엇입니까?
6. 동생이나 모르는 아이에게 음식을 먹 _____ 준 적이 있습니까?
7. 여러분 나라에서는 죽은 사람에게 어떤 옷을 입 _____ ?
8. 여러분 나라에서도 한국과 같이 어른에게 말을 높 _____ ?
9. 이유 없이 친구와의 약속 시간을 늦 _____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10. 여러분 나라에서는 아이를 재 _____ 때 특별히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까?
11. 일어날 때 누가 깨 _____ 줘야 합니까? 아니면 혼자 잘 일어나는 편입니까?
12. 여러분은 싱싱한 야채를 그대로 먹는 것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익 _____ 먹는 것을 좋아합니까?

마 게임을 해 봅시다.

• 두 명씩 한 팀이 되어 그림을 만든 후 사동사 카드를 나누어 가집니다.
 ④ ⑤ 사동사를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⑥ ⑦ 사동사가 무엇인지 맞춥니다.



입히다!

먹이다 입히다
 벗기다 재우다
 얼리다 낮추다

〈그림 13〉

장르
사동사를 정리해 봅시다.

사동사 (*: 5급 새 어휘)

-아-	-하-	-리-	-기-	-우-	-추-
끓이다	*끓히다	날리다	날기다	*깨우다	*낮추다
*녹이다	*녹히다	*늘리다	말기다	*끼우다	*낮추다
*높이다	맞히다	돌리다	*뱉기다	세우다	
*먹이다	*말히다	말리다	숨기다	*재우다	
보이다	*앉히다	살리다	*신기다	태우다	
숙이다	*익히다	알리다	*씻기다	키우다	
죽이다	*일히다	*얼리다	울기다		
줄이다		올리다	*웃기다		

사동사 문형

(사람)이/가 + (물건/사람)을/를 + 사동사	(사람)이/가 + (사람)에게 + (물건/사람)을/를 + 사동사
예 • 남자가 여자를 올렸어요. • 여자가 택시를 세웠어요. • 선생님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 어머니가 아이의 옷을 벗겼어요. • 아침마다 친구가 나를 깨웠어요. • 의사 선생님이 아이를 살렸어요. • 강도가 지나가는 사람을 죽였어요. • 저는 어제 얼음을 녹여서 먹었어요. • 선생님이 학생을 (의자에) 앉혔어요. • 어머니는 항상 9시에 아이를 재워요.	예 • 제가 친구에게 짐을 맡겼어요. • 어머니가 아이에게 밥을 먹였어요. • 어머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어요. • 어머니가 아이에게 두꺼운 양말을 신겼어요. • 친구가 나에게 여자 친구 사진을 보여 줬어요.

이 교재에서 ‘-게 하다’ 사동 표현에 대한 제시는 매우 간단하고 아무 설명이 없이 예문만 실려 있다. 다음〈표 8〉은 〈서강 한국어5A〉에서 ‘-게 하다’ 사동 표현에 대한 제시 방법이다.

〈표 8〉 〈서강 한국어5A〉에서 ‘-게 하다’ 사동 표현의 제시 방법

- 게 하다-

나는 골목을 지나갈 때 발을 멈추고 한참이나 서 있게 하는 피아노 소리를 좋아한다.

〈서강 한국어5A〉에서는 사동 표현을 도입 단계에서 만화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문법 설명이 하나도 없다. 제시된 사동문 역시 사동문의 문법적 특징은 설명되어 있지 않고 사동문의 문형만 제시하고 있다. 다른 교재보다 연습 문제가 많이 나온 것은 장점이라고 볼 수 다. 그리고 문형 제시에서 단순히 동사에 결합되는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에 결합한 단어도 함께 제시하는 것도 학습자가 사동 형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교재도 연세대 교재처럼 제시된 사동사 어휘 중에 사동 접사 ‘구’에 의해 형성된 사동사를 제외한 것이다. 그리고 ‘시키다’ 사동 표현도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서강 한국어1B〉에서 어휘로 제시되어 있다. 서강대 교재의 한국어 사동 표현의 제시 상황은 다음 〈표 9〉과 같다.

〈표 9〉 서강대 〈서강 한국어5A〉에서 사동 표현 제시 상황

사동 표현 유형	제시 특징
‘-이/히/리/기/우/구/추-’ 접미사 사동	문법 설명 없이 문형만 제시하는 방법. 사동 접사 ‘구’를 제외함. 연습 문제 풍부함.
‘-게 하다’ 사동	예문만 제시하여 문법 설명이 없고 연습도 매우 부족함.
‘시키다’ 사동	어휘로만 제시.

다른 교재보다 서강대의 교재에서 사동 어휘 제시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학습자가 정해진 수업 시간에 배우기에는 너무 많은 어휘를 제시하고 있다. 좀 더 빈도가 높은 어휘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1.5 이화여자대학교 〈이화 한국어3-1〉

〈이화 한국어〉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통합 교재이며 초급부터 고급까지 연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교재는 네 가지 언어 기능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면서도 특히 말하기 능력을 강화하도록 고안된 것이 특징이다. 〈이화 한국어3-1〉에서 제시된

한국어 사동 표현은 다음 <그림 14, 15>와 같다.

<그림 14>

Part 1

준비합시다

01 사동사

스스로 행동할 수 없는 아기에게 어떤 일을 해 줄 때 어떻게 말할까요?



율리아 씨가 옷을 입어요.



율리아 씨가 아기에게 옷을 입혀요.

문법

'사동사'는 다른 사람, 동물, 사물을 움직이게 하거나 어떤 상태에 이르게 함을 나타낸다. 사동사는 앞말과 사와 형용사에 '이, 히, 리, 기, 우, 추'를 붙여 만든다. 사동사에는 '먹이다, 보이다, 눅이다, 끓이다, 끓히다, 끓히다, 알히다, 알리다, 알리다, 돌리다, 감기다, 남기다, 맡기다, 숨기다, 웃기다, 세우다, 채우다, 채우다, 눅추다' 등이 있다.

① 어머니가 아이를 깨워요. 운동은 노화를 늦춰요.
건강을 위해 채증을 줄이세요. 어머니가 아기에게 우유를 먹여요.

② 'N+하다' 동사는 'N+시키다'의 형태로 사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③ 오후에 아기를 목욕시키세요.
식사 후에 아기를 유모차에 태워서 산책시키세요.

연습

아기 어머니가 무엇을 합니까? 다음의 어휘를 사용해서 그림을 보고 말해 보세요.

앉히다 씻기다 태우다 띄우다 신기다 벗기다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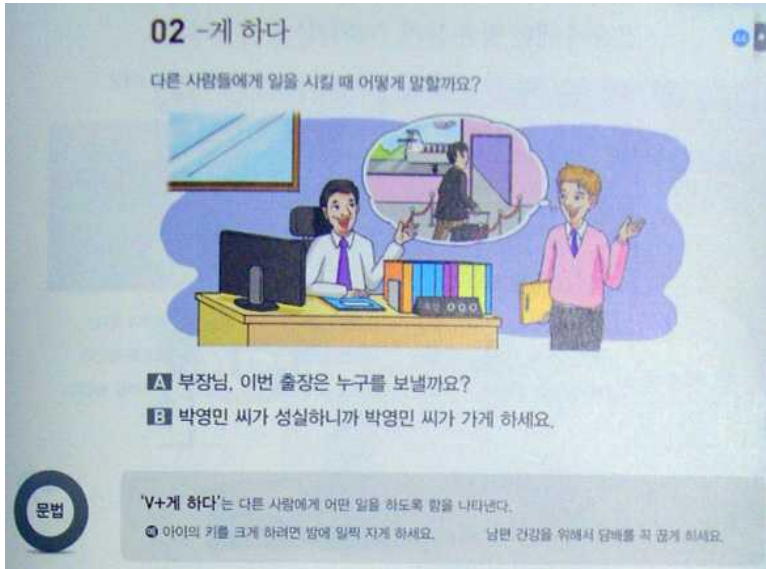




어머니가 아기를 의자에 앉혀요.

입히다
깨우다
노화
눅추다
채증
줄이다
먹이다
유모차
앉히다
씻기다
태우다
띄우다
신기다
벗기다

〈그림 15〉



〈이화 한국어3-1〉에 의한 한국어 사동 표현의 제시 방법을 보면 접미사 사동 표현과 ‘-게 하다’ 사동 표현뿐만이 아니라 ‘N+시키다’ 사동 표현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 이는 다른 교재에서 ‘시키다’를 어휘로만 분류하여 제시하는 것보다 학습자가 한국어 사동 표현을 체계적으로 배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N+시키다’ 사동 표현에 대한 제시는 매우 간단하고 예문만 제시해 놓고 연습이나 활동이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게 하다’ 사동 표현에 관한 제시 방법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연습 문제 하나도 없다. 이는 학습자가 사동 표현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다. 이화여대 교재의 한국어 사동 표현의 제시 상황은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이화여대 〈이화 한국어3-1〉에서 사동 표현 제시 상황

사동 표현 유형	제시 특징
‘-이/히/리/기/우/구/추-’ 접미사 사동	그림과 예문, 문법 설명과 함께 제시하는 방법. 연습은 부족함.
‘-게 하다’ 사동	예문만 제시하여 연습은 매우 부족함.

‘시키다’ 사동	‘N+시키다’의 형태로 제시. 연습은 매우 부족함.
----------	------------------------------

3.1.6 북경대학교 <한국어 2>

현재 중국 내 교육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 중 북경대학교에서 출판된 교재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교재 중의 하나다. 북경대 교재는 중국 내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으로 배우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한국어의 발음, 어휘, 문법 등에 대한 기초를 익히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번역하기의 기초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재이다. 북경대학교 출판된 <한국어 2>에서의 한국어 사동 표현 제시 방법은 다음 <그림 16>와 같다.

<그림 16> 북경대 <한국어 2> 사동 표현 제시 방법

9. 韩国语使动态动词的构成方式

韩国语使动态的构成方式有以下几种:

(1) 部分固有动词语干后加接尾词-이、-히、-리、-기、-우(이우)、-구、-추等。

● 例	녹다(溶)-----녹이다	죽다(死)-----죽이다
	익다(熟)-----익히다	앉다(坐)-----앉히다
	돌다(转)-----돌리다	살다(活)-----살리다
	웃다(笑)-----웃기다	숨다(藏)-----숨기다
	들다(升)-----들구다	쏟다(涌)-----쏟구다
	자다(睡)-----재우다	서다(立)-----세우다
	맞다(对)-----맞추다	보다(看)-----보이다
	먹다(吃)-----먹이다	결들다(加)-----결들이다
	신다(穿)-----신기다	맡다(任)-----맡기다
	엎다(背)-----엎히다	읽다(念)-----읽히다
	알다(知)-----알리다	놀다(玩)-----놀리다
	끼다(夹)-----끼우다	타다(乘)-----태우다

(2) 在由两个音节构成的汉字词后加-하다构成的动词中, 有很大一部分可以把하다换成시키다, 从而构成动词的使动态。

● 例	해산하다(解散)-----해산시키다	무장하다(武装)-----무장시키다
	공부하다(学习)-----공부시키다	파괴하다(破坏)-----파괴시키다
	약화하다(削弱)-----약화시키다	생략하다(省略)-----생략시키다
	변화하다(变化)-----변화시키다	

중국 북경대학교 <한국어 2>의 한국어 사동 표현 제시 방법을 살펴보면 한국 국내 한

국어 교재의 한국어 사동 표현과 거의 비슷하게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교재에서 한국어 접미사 사동 표현과 ‘-게 하다’ 사동 표현뿐만 아니라, ‘시키다’ 사동 표현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중국 내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재이므로 문법 제시와 설명은 모두 중국어로 되어있어 중국인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게 구성한 것도 이 교재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게 하다’ 사동 표현의 제시는 ‘-게 하다’ 사동 표현에 대한 문법 설명이 없고, 세 가지 사동 표현에 관한 연습 문제도 거의 없다. 북경대학교 교재 내 한국어 사동 표현의 제시의 가장 좋은 점은 ‘시키다’ 사동 표현이 ‘체언+시키다’의 사동 표현으로 따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경대 교재의 한국어 사동 표현의 제시 상황은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북경대 <한국어 2>에서 사동 표현 제시 상황

사동 표현 유형	제시 특징
‘-이/히/리/기/우/구/추-’ 접미사 사동	문형 제시를 중국어로 번역함. 문법 설명 없이 문형만 제시하는 방법. 연습 문제 풍부함.
‘-게 하다’ 사동	예문만 제시하여 문법 설명이 없고 연습도 매우 부족함.
‘시키다’ 사동	동사의 ‘하다’를 ‘시키다’로 바꿔 ‘체언+시키다’의 형태로 제시. 연습은 매우 부족함.

북경대학교 교재의 한국어 사동 표현의 제시 특징은 접미사로 이루어진 사동사를 많이 제시하여 학습자의 어휘 암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접미사 사동 표현, ‘-게 하다’ 사동 표현, ‘시키다’ 사동 표현을 같이 교육하는 것도 학습자로 하여금 세 가지 사동 표현의 통사 및 의미적인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별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3.2 교재 분석 결과

지금까지 한국어 국내 교육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교재에서 제시된 사동

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각 교재에 제시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 <표 12>과 같다.

<표 12> 각 교육기관 한국어 교재 내 사동 표현 제시 상황

교육기관	교재 명	‘-이/히/리/기/우/ 구/추-’ 접미사 사 동	‘-게 하다’ 사동	‘시키다’ 사동
		제시 여부	제시 여부	제시 여부
고려대	재미있는 한국어4	○	○	X
연세대	연세 한국어3-1, 3-2	○	○	X
경희대	한국어 고급2	○	○	X
서강대	서강 한국어5A	○	○	X
이화여대	이화 한국어3-1	○	○	○
북경대	한국어2	○	○	○

<표 12>을 보면 모든 교재들이 거의 중급 단계에서부터 사동 표현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동 표현이 한국어 3급에서부터 제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제시된 사동 표현의 범위가 각 교재별로 일치하지 않고 조금씩 다름을 알 수 있다. 교재마다 제시하고 있는 사동 표현이 다른 것은 위의 표현들을 어디까지 사동의 문법 범주에 포함시켜 교수할 것이냐는 문제와 연관된다. 또한 대부분 교재에서 ‘시키다’를 어휘로 분류하며 ‘체언+시키다’형 사동을 사동 표현 교육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리고 각 교재는 한국어 사동 표현에 대한 설명과 연습이 부족하여 학습자가 배우는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사동 표현의 교수 학습 지도안을 모색할 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보다 효과적인 교수 지도안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위에서 각 교재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교재의 교육 내용에 선정된 한국어 사동 표현의 유형에 대한 총체적인 기준

이 없다. 한국어 사동 표현의 유형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특히 위의 대부분 교재에서 한국어 사동 표현에 대하여 ‘-이/히/리/기/우/구/추/-’ 접미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접미사 사동 표현과 ‘-게 하다’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동 표현만 한국어 사동 표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N-시키다’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동 표현으로 다루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N-시키다’가 사동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문법 요소가 아닌 어휘 요소에 의한 사동 표현에 속한다고 보고 문법적인 사동 논의에서 제외(고영근·구본관 2008:365)한 것이라 추정된다. 하지만 ‘N-시키다’사동은 한국어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화되는 일상적인 표현이므로 의사소통과 유창성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N-시키다’사동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어문법의 분류 체계를 따라 ‘N-시키다’사동을 포함하여 접미사 사동, ‘-게 하다’사동, 그리고 ‘N-시키다’사동의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겠다.

둘째, 각 교재에서 제시된 사동을 보면 대부분의 교재가 사동 표현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어휘적 사동을 제시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흔히 말하는 통사적 사동 ‘-게 하다’를 대부분 교재에서 형태 제시만 해놓고 문법적인 설명은 다루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교재에서 ‘N-시키다’사동을 제시하지 않은 것도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사동문을 단지 단순히 사동의 의미를 가지는 어휘를 제시하는 데 그쳐 다른 사동문 유형을 소홀히 한 것은 외국인 학습자들이 배우는 데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사동 표현의 특징을 분명하게 표현되지 않고 있다. 특히 ‘-게 하다’와 ‘-이/히/리/기/우/구/추-’는 의미적, 통사적으로 많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 교재에서는 두 가지 사동 표현 유형을 연결하여 설명한 것이 없다. 교재에서는 이들을 서로 비교하여 의미적인 차이까지 설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교재에서 사동사를 제시하고 있지만, 어떤 동사가 사동으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다. 단지 사동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와 사동사의 활용, 또는 추가적으로 사동사 변환 연습을 행하고 있는 것이 교재들의 주된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학습자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문법 변환 및 어휘 암기가 아니다. 어떤 동사가 사동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동사가 사동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학습자들이 사동표현

을 배우는 데 조금 더 수월할 것이다.

IV. 사동 표현 교수 학습 방안

한국어와 중국어 사동문의 대조 분석을 통해 사동문에 있어서 양 언어 간에 많은 차이점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런 차이점으로 인해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사동문을 배울 때 오류가 많이 나타난다. 이 장에서는 이런 오류 분석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사동 표현 교육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4.1 교육자료 구성 방안

앞서 한국어 교재에서 살펴본 것을 보면 사동의 의미를 포함된 그림이나 사진 혹은 대화로 사동의 상황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다. 이는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사동문을 배울 때 직관적으로 사동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좋은 방법이다. 이와 같이 행동 묘사나 그림, 사진, 혹은 동영상 등 시각적인 자료 제시를 통해 그 상황을 전달하여 사동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외국인 학습자를 교육할 때 적용하면 좋은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재에서 드러난 부족한 점은 그림이나 사진 등 시각적 자료를 통해 사동과 관련된 상황을 제시하는 데만 그치고 있어 사동에 대한 문법적인 설명이 없는 것이다. 또한 사동을 제시할 때 단순히 어휘로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사동문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해하는 데 어려운 점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이런 점을 감안하여 중급 단계의 중국인 학습자를 위해 사동문의 개념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자료를 통해 제시하는 것과 문법적 설명을 같이 하는 방법을 채택할 것이다.

4.2 교수 방안

4.2.1 교수 모형

보편적인 언어 수업에서 문법을 적절하게 통합하여 적용하는 수업 모형으로는 PPP모형과 TTT모형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윤경애 2008:172~174참조).

첫째, 제시 훈련(PPP)모형은 교사가 올바른 언어 사례를 제시하고 학습자가 반복 연습하여 바른 언어 자료를 자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모형으로서, 제시(presentation) → 연습(practice) → 생산(product)으로 구성된다. PPP모형은 교사가 문법 사용의 정확한 정보를 먼저 제시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연습하여 유창성을 획득하게 하는 방식이다. 제시(presentation)단계에서는 교사가 학습 문법 항목을 연역적으로 제시하고 설명한다. 연습(practice)단계에서는 학생들이 학습한 문법을 연습한다. 생산(product)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배운 문법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둘째, 과제 훈련(TTT)모형은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목표로 과제를 제시하여 해결함으로써 언어를 습득하게 하는 귀납적 방식의 모형이다. 이모형은 과제1(task1) → 교수 활동(teach) → 과제2(task2)로 구성되는데 이때 과제1은 의사소통형 과제(communicativetask)이며 과제2는 과제1의 반복 또는 유사 과제이다. TTT모형은 과제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학습자들은 의사소통 과제를 수행하면서 유창성을 익힌 후 다시 이와 유사한 다른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각 문법 항목의 특징을 정확하게 배우는 과정을 거친다. 즉 TTT모형은 유창성을 익힌 후 정확성을 가미한 문법 교수 모형이다.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표 13>과 같다.

<표 13> PPP모형과 TTT모형

PPP모형	제시(presentation) → 연습(practice) → 생산(product)
TTT모형	과제1(task1) → 교수 활동(teach) → 과제2(task2)

위의 PPP모형과 TTT모형은 수업환경과 학습자변인 등에 의해 적절히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PPP모형은 실제 한국어 교실 수업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모형으로서 특정한 기능 및 내용에 국한되지 않고, 언어 수업의 구성 단계를 ‘도입(warm up) → 제시(Presentation) → 연습(Pratice) → 사용(Use) → 마무리(Follow-up)’의 5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14>과 같다.

<표 14> 한국어 수업 단계 및 단계별 내용¹¹⁾

수업 단계	단계별 내용
도입 단계 (Warm up)	학습 목표 및 목표 문법을 자연스럽게 도입하도록 한다. 목표 문법: 사동 표현
제시 단계 (Presentation)	도입 단계에서 나타난 사동 문법의 의미, 형태 및 활용까지 제시하도록 한다. 근접할 수 있는 활용 및 의미를 단순하게 제시하도록 한다.
연습 단계 (Practice)	제시 단계에서 도입된 문법의 형태, 활용을 바탕으로 먼저 기계적 연습을 통하여 학습자가 문법 기능을 이해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유의적 연습 활동을 진행하도록 한다.
사용 단계 (Use)	카드, 그림, 매체 등 다양한 수단으로 실제 생활과 연결시키고 말하거나 쓰기를 하도록 한다.
마무리 단계 (Follow up)	교사가 아니라 학습자를 중심으로 스스로 학습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고 나서 교사가 보충해준다. 그리고 학습자의 자신감을 최대한 높이도록 한다.

이는 대표적인 상향식 모형인 PPP를 변형하여 언어 교육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교수 모형으로서 의사소통 교수법을 이용하는 사동법 교수 모형의 설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교실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보편적인 “PPP 5단계 모형”을 이용하여 실제 교실 수업에서 필요로 하는 사동법 교수 방안을 이 모델에 근거하여 접미사 사동, ‘-게 하다’사동, ‘N-시키다’사동의 순서대로 제시하도록 하겠다.

4.2.2 접미사 사동 교수 학습 방안

11) 김정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참조.

학습 개요

학습 목표	한국어 접미사사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학습 내용	한국어 “-이/히/리/기/우/구/추-” 접미사 사동
강의 대상	3급 중국인 학습자 10명
학습 도구	크림 카드
강의 시간	50분

(교사-T / 학습자-S)

도입 단계	비고
 T: 이 사진에서 아이는 뭘 하고 있어요? S: 아이는 우유를 먹고 있어요. T: 엄마는 뭘 하고 있어요? S: 아이에게 우유를 줘요. T: 네, 아이는 우유를 먹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는 아이에게 우유를 <u>먹이고</u> 있어요.	다음의 사진을 제시하고 아이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주동), 엄마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사동)를 학습자들에게 질문을 한다. 교사는 학습자들의 대답을 종합한 마지막 문장을 밑줄 친 부분을 강조하여 두 번 읽으며 ‘주동-사동’관계인 ‘먹다-먹이다’를 무의식중에 노출시켜 앞으로 학습할 내용이 행위자가 남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임을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한다.

제시 단계	비고
1. 의미 제시	위에서 나온 대화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칠

(ㄱ) 아이가 우유를 <u>먹어요</u>. (ㄴ) 엄마가 아이에게 우유를 <u>먹여요</u>.   (ㄷ) 아이가 한복을 <u>입어요</u>. (ㄹ) 엄마가 아이에게 한복을 <u>입혀요</u>.  	판에 판서하고 주동과 사동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설명해준다. (ㄱ)에서 ‘아이’가 스스로 행동하는 것을 주동이라 하고, (ㄴ)에서 ‘엄마’가 어떠한 동작을 아이에게 시키면 사동이라 설명한다. 다른 예문을 그림과 함께 추가로 제시하여 개념을 확실히 이해시킨다.
--	--

2. 문법 제시 사동(使動, Causative) : 주체가 남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도록 시키는 동작을 사동이라고 한다. 사동으로 표현한 문장을 사동문이라고 합니다. 主体指使客体做某事的动作行为称之为使动，用使动形式表达的句子称之为使动句。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인 일이 생기게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행동합니다.	시각적인 자료를 제시한 후에 문법적인 설명을 같이 하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한국어 사동문의
---	---

通过行动直接或间接使他人进行某种动作或者使事情产生某种结果。

일부 동사와 형용사 어간에 ‘-이/히/리/기/우/구/추-’를 붙여서 만듭니다.

使动态为在部分动词和形容词的词干后接“-이/히/리/기/우/구/추-”即可。

동사	+	-이/히/리/기/우/구/추-	→	사동사
먹다	+	-이-	→	먹이다
앉다	+	-히-	→	앉히다
울다	+	-리-	→	울리다
웃다	+	-기-	→	웃기다
깨다	+	-우-	→	깨우다
떨다	+	-구-	→	떨구다
늦다	+	-추-	→	늦추다

개념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학교 문법에서 나온 개념을 중국어 설명과 함께 제시한다.

3. 형태 제시

사동 표현은 문장을 만들 때 다음과 같은 형태로 만듭니다. 즉, 위에 있는 주동형의 문장이 사동형이 되면 아래쪽에 있는 문장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使动态在句子中的形态变化如下：上面的主动态句子变成使动态时，要变为下面的句子形态。

a. 주동문의 서술어가 타동사일 때

当主动句的谓语是及物动词时的变化：

[주동문]: 아이가 밥을 먹는다.

사동문에 새로운 주어가 첨가되고,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의 부사어(에게/한테)로 바뀌며, 주동문의 목적어는 변하지 않고, 주동문의 서술어인 타동사의 어간에 사동접미사가 결합하여 사동사로 바뀔을 설명해준다.

주어 목적어 타동사 서술어 ↓ ↓ ↓ [사동문]: <u>엄마가</u> <u>아기에게</u> <u>밥을</u> <u>먹인다.</u> 새 주어 부사어(목적어) 목적어 사동사 서술어 b. 주동문의 서술어가 자동사나 형용사일 때 当主动句的谓语是不及物动词时的变化： [주동문]: <u>아기가</u> <u>운다.</u> 주어 자동사 서술어 ↓ ↓ [사동문]: <u>동생이</u> <u>아기를</u> <u>올린다.</u> 새 주어 목적어 사동사 서술어 c. 주동문의 서술어가 형용사일 때 当主动句的谓语是形容词时的变化： [주동문]: <u>길이</u> <u>넓다.</u> 주어 형용사 서술어 ↓ ↓ [사동문]: <u>아저씨들이</u> <u>길을</u> <u>넓혔다.</u> 새 주어 목적어 사동사 서술어 ※ 한국어 ‘-이/히/리/기/우/구/추-’ 사동 표현은 중국어로 번역할 때 항상 ‘使, 叫, 讓, 给, 把’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韩语的使动句翻译为中文时，常常变形为“使，叫，讓，	사동문에 새로운 주어가 첨가되고,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의 목적어로(을/를)바뀌며, 주동문의 서술어인 자동사의 어간에 사동접미사가 결합하여 사동사로 바뀔을 이해시킨다. 한국어 접미사 사동 표현은 중국어 사동 표현과 대응되는 관계를 예문으로
--	---

给, 把”的形态。 1) 그 아이는 강아지를 죽였다. 那个小孩杀死了小狗。 / 那个小孩把小狗杀死了。 2) 친구가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朋友把车停在地下停车场。 3)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 妈妈喂孩子吃饭。 / 妈妈给孩子喂饭。 4) 친구가 책상을 교실로 옮겼다. 朋友把书桌搬到教室去了。 5) 엄마가 아침마다 아이를 얼굴을 씻겨요. 妈妈每天早晨让/叫孩子洗脸。 자주 쓰이는 사동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常用的使动词如下所示：	설명해준다. ‘-이/히/리/기/우/구/추-’ 사동 표현의 어휘 각각 여러 개를 제시하여 설명 해준다. 학습자로 하여금 암기하도록 하다.
--	---

※ 중국인 학습자가 모국어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국어 사동사를 중국어의 의미와 대응되는 단어와 묶어서 서로의 의미 및 용법이 제시되는 것이 학습자가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해 다음 <표 15>에서는 한국어 사동사에 대응되는 중국어의 사동의 의미를 밝혀 놓았다. 이 표에서 제시된 사동사는 각 학교별 교재에 대한 분석한 결과에 따라 만든 것이다.

〈표 15〉 한국어와 중국어 접미사사동 어휘 대조

단어 원형 单词原型		접미사	사동형 使动态	
한국어	중국어		한국어	중국어
먹다	吃, 吃饭	이	먹이다	喂, 给…吃
죽다	死, 死亡		죽이다	杀死, 弄死
붙다	贴		붙이다	把…贴上
끓다	煮, 烧		끓이다	烧开, 煮沸
보다	看		보이다	给…看
속다	上当, 受骗		속이다	欺骗
줄다	减少, 缩小		줄이다	减少, 缩小
높다	高		높이다	加高, 弄高
녹다	融化		녹이다	使…融化
읽다	读	히	읽히다	让…读
입다	穿		입히다	给…穿
앉다	坐		앉히다	让…坐, 使…坐
눕다	躺		눕히다	让…躺下
넓다	宽		넓히다	加宽, 扩大
익다	熟		익히다	弄熟, 把…弄熟
밝다	亮, 清晰		밝히다	把…照亮, 弄清楚
알다	知道, 理解	리	알리다	告诉, 通知
울다	哭, 哭泣		울리다	弄哭, 使…哭泣
돌다	转 (动)		돌리다	使…转动, 传递, 传送
살다	活		살리다	救活, 弄活, 使…生存
얼다	结冰, 冻住		얼리다	使…冻住, 使…结冰
벗다	脱	기	벗기다	扒下, 揭开, 给…脱下
신다	穿		신기다	给…穿
웃다	笑		웃기다	可笑, 搞笑, 逗人发笑
맡다	担负, 委托		맡기다	让…负担, 让…委托
감다	洗 (头发)		감기다	给…洗
씻다	洗		씻기다	给…洗
남다	剩下		남기다	剩下, 留下, 遗留

숨다	藏, 躲		숨기다	隐藏, 隐瞒
자다	睡觉		재우다	让…睡觉
서다	站		세우다	停止, 勒住
타다	坐 (车)		태우다	让…乘坐
쓰다	戴	우	씌우다	给…戴
깨다	醒		깨우다	弄醒, 叫醒
비다	空		비우다	给…空出来 (空间)
채다	填满		채우다	填满, 灌满
떨다	落下, 掉落	구	떨구다	使…掉落, 使…落下
낮다	低, 矮	추	낮추다	降低, 放低
늦다	晚, 迟到		늦추다	放慢, 推迟, 挨迟

연습 단계	비고
1. 빈칸 채우기 [타동사] 먹 다 먹 이 다 T: 엄마가 동생에게 약을 _____(주동 카드 제시) S: 먹어요. T: 네, 엄마가 동생에게 약을 먹어요. (사동 카드 제시) 입 다 입 히 다 T: 남자친구가 그녀에게 외투를 _____ S: 입어요. T: 입혀요. (고쳐 말하기) [자동사] 울 다 울 리 다 T: 형이 동생을 _____ S: 울어요.	시각적으로 주동사의 단어카드와 함께 선행절을 제시하고 교사의 질문에 대해 학습자들이 사동사로 변형하는 완성연습을 한다. 학생 스스로가 오류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교사는 지속적인 피드백을 해 준다.

T: 올려요. (고쳐 말하기) [형용사] 밝 다 밝 히 다 T: 정전이 돼서 촛불을 켜고 방을 _____ S: 밝았어요. T: 밝혔어요. (고쳐 말하기)	
---	--

2. 대화 연습	비고
T: 태풍 때문에 나무가 쓰러졌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우다) S: 나무를 세워요. T: 밖에서 인부들이 무엇을 하나요? (넓히다) S: 밖에서 인부들이 길을 넓어요. (발화실패) T: 네, 밖에서 인부들이 길을 넓혀요. (고쳐말하기 시도) 학생 : 밖에서 인부들이 길을 넓혀요. (발화성공)	활동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위에서 학습한 사동법을 실제 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여 그에 적합한 사동 표현을 활용하게 하는 과정으로서 지금까지 학습한 문법 내용으로 의사소통기능과 관련된 간단한 대화연습으로 이루어지며, 오류에 대해서는 ‘고쳐 말하기(Recast)’기법을 이용해서 교정해준다.

3. 한중 번역 연습 다음 문장을 한국어 ‘-이/히/리/기/우/구/추-’사동 표현으로 번역해주세요. 1) 弟弟把小猫弄死了。→ (동생이 고양이를 죽였어요.) 2) 我给玩偶穿上了新衣服。→ (내가 인형에게 새 옷을 입혔어요.) 3) 阳光让冰块融化了。→ (햇빛이 얼음을 녹였어요.) 4) 室友把房间空出来了。→ (룸메이트가 방을 비웠어요.) 5) 爸爸把收音机音量调小了。→ (아버지가 라디오 소리를 낮추셨어요.)	

사용 단계	비고
1. 짝 활동 (듣고 말하기) 다음 대화를 듣고 의미와 문법에 맞게 다른 사람과 다시 이야기해보세요.	대화를 듣고 다시 말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면 학습자의 관심을 유지하면서 접미사사동표현을 이해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듣기 문제> 아빠: 아이가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사: 우선 옷을 두껍게 <u>입히시고</u>, 찬 음식을 <u>먹이지</u> 마세요. 아빠: 오늘 학교에 보내지 말까요? 약사: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아이가 집에 돌아오면 손발을 깨끗이 <u>씻기시고</u> 일찍 <u>재우</u> <u>시면</u> 내일은 좋아질 거예요.	
---	--

마무리 단계	비고
T: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배운 내용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질문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리고 방과 후 숙제를 완성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오늘의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미비했던 설명을 보충하거나 오류를 수정해주면서 학습자들의 이해도를 점검하고 내용과 관련된 과제를 내주며 수업을 마친다. 과제는 목표 문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읽고 쓰기의 형식으로 제시한다.

4.2.3 ‘시키다’와 ‘-게 하다’ 사동 교수 학습 방안

학습 개요

학습 목표	한국어 ‘시키다’와 ‘-게 하다’ 사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학습 내용	한국어 ‘시키다’와 ‘-게 하다’ 사동
강의 대상	3급 중국인 학습자 10명
학습 도구	크림 카드

강의 시간	50분
-------	-----

(교사-T /학습자-S)

도입 단계	비고
교사는 미리 주변에 의자를 준비하고 직접 의자에 앉는다. T: 선생님 방금 무엇을 했어요? S: 의자에 앉았어요. (이번에는 교사가 학생 한명을 앞으로 나오게 하고 의자에 앉힌다.) T: 선생님 방금 무엇을 했어요? S: 선생님은 A씨를 앉혔어요. T: 네, 저는 지금 A씨를 의자에 앉혔어요. T: 여러분, 책 58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학생들이 책을 읽고 있다.) T: 자, 선생님은 방금 무엇을 했어요? S: 책을 읽으라고 했어요. T: 네, 선생님은 방금 여러분을 책을 읽게 했어요. T: 여러분, 어제 배운 대화를 연습하세요. (학생들이 대화 연습을 하고 있다.) T: 자, 선생님은 방금 무엇을 했어요? S: 대화 연습을 하라고 했어요. T: 네, 제가 여러분에게 대화 연습시켰어요. 대화 연습을 하게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시키다’ 사동과 ‘-게 하다’ 사동 표현을 공부할 거예요.	교사는 학생을 직접 의자에 앉히거나 학생이 스스로 앉도록 시키는 등의 행위를 통해 직접사동과 간접사동의 의미를 학습자에게 인식시키도록 한다. 교사는 ‘앉혔다’와 ‘읽게 하다’부분을 강조하여 두 번 읽으며 직접사동과 간접사동의 차이를 무의식중에 노출시켜 앞으로 학습할 내용에 대해 자연스럽게 접근하게 한다. ‘연습시키다’와 ‘연습을 하게 한다’부분을 강조하여 ‘시키다’와 ‘-게 하다’의 대응 관계를 이해시킨다.

제시 단계	비고
1. 문법 및 형태 제시 1) 사동주가 피사동주를 어떤 행위를 하게 하거나 어떤 상황에 처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표현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시킨다는 의미로 동사 다음에 ‘-게 하다’를 붙여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간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此句型在指使某人做某事时使用，在动词后加‘-게 하다’，一般具有间接指使的意思。 가) 할머니께서 손녀를 노래를 부르게 하셨다. 奶奶让孙女唱歌。 나) 선생님은 학생들로 하여금 책을 읽게 하였다. 老师让学生读书。 다) 언니가 동생에게 방을 청소를 하게 하였다. 姐姐让弟弟打扫房间。 2) 일부 ‘한자어+하다’ 유형의 동사에서 한자어 뒤에 사동 접사인 ‘-시키-’를 붙여서 ‘한자어+시키다’의 형식으로 사동사가 될 수 있습니다. 在由两个音节构成的汉字词后加-하다构成的动词中，一部分可以把하다换成시키다，从而构成动词的使动态。 공부(工夫)하다 - 공부시키다	도입 단계에서 노출된 문법 항목을 제시하고 학습자가 명확하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발전(發展)하다 - 발전시키다
 인식(認識)하다 - 인식시키다
 해산(解散)하다 - 해산시키다
 약화(弱化)하다 - 약화시키다
 무장(武裝)하다 - 무장시키다
 발생(發生)하다 - 발생시키다
 증가(增加)하다 - 증가시키다
 추진(推進)하다 - 추진시키다

※ ‘-이/히/리/기/우/구/추-’ 사동과 ‘-게 하다’ 사동의 차이
 ‘-이/히/리/기/우/구/추-’ 使动用法与 ‘-게 하다’ 使动用法的差异

㉞ 아버지가 아이에게 밥을 먹인다.

㉟ 아버지가 아이에게 밥을 먹게 한다.



위의 그림 ㉞는 아버지가 직접 손가락으로 아이에게 밥을 떠 먹여주고 있는 직접 사동이고, ㉟는 아버지는 아이에게 아이 스스로 밥을 먹게 지시하고 있는 간접 사동이다.

左边的图是爸爸主动喂小孩吃饭，句子主语亲自参与动作，属于直接使动用法。右边的图是爸爸间接让小孩吃饭，主语并不参与动作，属于间接使动用法。

‘-이/히/리/기/우/구/추-’ 사동과 ‘-게 하다’ 사동의 차이 점을 비교하여 제시한다.

※ 한국어 ‘- 게하다’ 사동 표현과 ‘시키다’ 사동 표현은 중국어로 번역할 때 항상 ‘讓, 叫, 令’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1) 엄마가 아이를 자기 방 안에서 놀게 하였다. 妈妈讓/叫小孩在自己的房间玩。 2) 그의 맹활약은 감독님을 안심하게 하였다. 他的活跃表现讓/叫/使教练很放心。 3) 교관이 우리를 해산시켰다. 教官讓/叫/令我们解散。 ※ ‘시키다’와 ‘- 게 하다’를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1) 선생님이 학생들을 교실을 청소시켰다. / 청소하게 하였다. → 老师让学生打扫教室。 2) 어머니의 말이 나를 감동시켰다. / 강동하게 하였다. → 妈妈的话让我感动。 3) 아버지가 아들을 운동시켰다. / 운동하게 하였다. → 爸爸叫儿子运动。 4) 선생님은 학생들을 공부시켰다. / 공부하게 하였다. → 老师叫学生学习。 ※ 형용사 ‘하다’를 ‘시키다’로 바꾸어 쓸 수 없다. 1) 언니가 동생을 방을 깨끗시켰다. (X) 2) 어머니가 아들을 똑똑시켰다. (X)	한국어 ‘-게 하다’ 사동 표현과 ‘시키다’ 사동 표현은 중국어 사동 표현과 대응되는 관계를 예문으로 설명해준다. ‘시키다’와 ‘- 게 하다’를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해준다. 형용사 뒤에 ‘하다’가 결합되어 있지만 ‘시키다’로 바꾸어서 사동 표현을 이룰 수 없
---	---

4) 선생님은 학생들을 암전시켰다. (X)	다는 점을 강조하여 예문으로 제시해준다.
-------------------------	------------------------

연습 단계	비고
1. 빈칸 채우기 1) 다음 보기와 같이 ‘-게 하다’를 이용해서 바꿔 보세요. 예: 아이가 예쁜 옷을 입었어요. → 어머니가 아이에게 예쁜 옷을 입게 했어요. 가) 동생이 안경을 썼다. 의사 선생님이 동생에게 안경을 _____ 나) 철수가 책을 읽었다.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책을 _____ 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 친구가 우리들을 _____ 2) 다음 문장을 보기와 같이 ‘시키다’ 사동 표현으로 바꿔보세요. 예: 운동장에서 축구팀이 훈련하고 있다. → 운동장에서 감독이 축구팀을 훈련시키고 있다. 가) 영희가 숙제를 발표했다. 선생님이 영희에게 숙제를 _____ 나) 동생이 병원에 입원했다. 엄마가 동생을 병원에 _____ 다) 우리들은 노래를 연습했습니다.	제시 단계에서 학습한 장형사동의 형태에 대해 연습 하고, 기존에 학습한 단형사동과의 의미 차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습한다.

그 친구가 우리들을 _____

라) 경찰이 범인을 구속했다.

마) 사장이 그 남자를 해고했다.

바) 그 선수가 선발에서 제외되었다.

2. 의미 연습

다음 사진을 보고 알맞은 문장을 고르세요.



1) 그녀는 커피를 마셔요.

2) 그녀가 그 남자에게 커피를 마시게 해요.

단형사동, 장형사동 구분하기

그림 카드를 준비하여 그림에 맞는 시각적 입력 강화 처리된 사동 표현을 상황에 맞게 주동문과 장형사동을 구분하는 연습과 직접사동과 간접사동을 구분하는 연습을 각각 실행한다.

다음 사진을 보고 알맞은 문장을 고르고,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 1)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혀요.
- 2)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게 해요.

3. 한중 번역 연습

다음 문장을 한국어 ‘-게 하다’와 ‘시키다’ 사동 표현으로 번역해주세요.

- 1) 妈妈让孩子自己穿鞋。(-게 하다) → (어머니가 아이에게 신발을 신게 했어요.)
- 2) 老师让学生把冰块融化开。(-게 하다) → (선생님이 학생에게 얼음을 녹게 했어요.)
- 3) 妈妈不让孩子看电视。(-게 하다) → (어머니가 아이를 텔레비전을 보지 못하게 했어요.)

4) 弟弟让鸽子飞走了。(–게 하다) → (동생이 비둘기를 날아가게 했어요.) 5) 我让弟弟做运动。(시키다) → 내가 동생을 운동시켰어요. 6) 爷爷让奶奶唱歌。(시키다) →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노래시켰어요. 7) 妈妈让弟弟跑腿。(시키다) → 어머니가 동생을 심부름시켰어요.	
---	--

사용 단계	비고
2. 짝 활동 (읽고 말하기) 다음 대화를 읽고 의미와 문법에 맞게 다른 사람과 다시 이야기해보세요. <읽기 지문1> 가: 왜 요즘 정호 씨를 안 만나요? 나: 항상 약속 시간을 안 지켜서 저를 화나게 하거든요. 너무 부탁을 많이 해서 저를 짜증나다.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해서 저를 당황스럽다. <읽기 지문2> 가: 아이가 몸이 약해서 걱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 음식을 골고루 먹게 하세요. 그럼 건강해질 거예요. 컴퓨터 게임을 너무 많이 하다. / 밖에 나가서 놀다.	제시와 연습을 통해 학습한 문법 항목을 보다 큰 담화 단위에서 사용하는 의사소통 과정으로서 재구성하기 기법을 적용하여 텍스트의 이해와 산출에 이르는 과정을 수행하도록 한다. 1) 텍스트 구성. 2) 학습자를 2~3명으로 구성하여 소그룹을 만든다. 3) 학습자들에게 소그룹별로 만든 내용을 비교하고

요즘 눈이 나빠지다. / 텔레비전을 가까이서 못 보다. <읽기 지문3> 가: 아기가 어젯밤부터 열이 나고 기침도 해요. 나: 오늘 주사를 맞히시고 약을 꾸준히 먹이세요. 그리고 당분간 목욕시키지 마세요. 가: 네, 그럼 언제쯤 다시 올까요? 나: 내일 지나도 낫지 않으면, 그때는 입원시켜야 합니다. 시험 기간이 다가오다. / 연습을 하다. 동생이 깨끗해졌다. / 목욕하다.	의견을 교환하여 원문과 최대한 유사하게 재구성하도록 지시한다.
---	------------------------------------

마무리 단계	비고
T: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배운 내용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질문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리고 방과 후 숙제를 완성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비고 오늘의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미비했던 설명을 보충하거나 오류를 수정해주면서 학습자들의 이해도를 점검하고 내용과 관련된 과제를 내주며 수업을 마친다. 한국어 ‘-이/히/리/기/우/구/추-’ 사동 표현과 ‘시키다’, ‘-게 하다’ 사동 표현을 비교하여 문장을 만들도록 숙제로 남겨주고 다음 시간에 검사하도록 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어와 중국어 두 언어의 사동 표현의 개념과 유형을 대조 분석을 통하여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효율적인 한국어 사동 표현 교육 학습 지도안을 모색하였다.

우선 2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하여 한국어와 중국어의 사동 표현의 개념을 정리를 했고, 두 언어의 사동 표현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어의 사동 표현은 ‘-이-, -히-, -리-, -기-, -우-, -추-, -구-’의 ‘사동 접미사’에 의한 ‘접미사 사동’과 명사 ‘N’과 ‘시키다’의 결합인 ‘N-시키다’에 의한 사동문, 그리고 보조 동사 ‘-게 하다’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통사적 사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어 사동 표현을 ‘使, 叫, 讓, 令, 给, 把’ 등 여러 가지 사동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동 전치사를 의해서 만들어지는 통사적 사동 표현, 즉, ‘유표지’ 사동 표현과 정한 사동 표지 없이 다른 사동성을 가지고 있는 타동사를 이용하는 어휘적 사동 표현, 즉, ‘무표지’ 사동 표현에 대하여 분석해보았다. 이들을 대상으로 삼아 한국어와 중국어의 사동 표현에 존재하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해보았다.

3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한국어 사동 표현과 중국어 사동 표현의 대응관계를 토대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사동 표현이 어떻게 교수되고 있는지를 현재 한국 국내 대학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 6권과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 1권, 총 7권을 통하여 분석해보았다.

4장에서는 교재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PPP 5단계 모형을 이용하여 접미사사동, ‘-게 하다’사동, ‘N-시키다’사동의 순서대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구체적인 교수 학습 지도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본고에서 제안한 사동 표현 교수 방안을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여 그 효과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향후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국립국어연구원. (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체계판),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윤정. (1995). 『現代中國語使動文研究』, 『중국어언어연구』 제5집.
- 남기심·고영근. (1986). 『표준 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 박민진. (2004). 『피동·사동표현 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수. (2002). 『現代中國語使動文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봉자. (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문법: - 피동/사동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2-2
- 송창선. (1998). 『국어 사동법 연구』, 『한국어연구』, 경북대학교 홍문각.
- 왕례량. (2009). 『한국어 사동표현과 중국어와의 대조연구』, 『중국어학연구』제50집
- 윤경애. (2008). 『중국대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연결어미 교육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관규. (2002). 『학교문법론』(개정판), 월인출판사.
- 이익섭·임홍빈. (1983). 『국어문법론』, 학연사.
- 전전령. (2011). 『한국어 파생적 사동문의 교육에 관한 연구 -중급 단계의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길림. (2007). 『한국어와 중국어 사동문의 대조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해주. (2007). 『한국어 피동·사동 표현의 효율적인 교육방안 연구』, 『한국국어교육학회』110차 전국학술대회.

최현배. (1937).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한봉. (2010).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사동표현 교수방안』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허웅. (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中韓大辭典』. (1995). 高大民族文化研究所.

2. 국외문헌

呂叔湘. (2005). 『现代汉语八百词』 商务印书馆.

『現代漢語虛詞例釋』. (1982). 商务印书馆.

ABSTRACT

A Study of Causative Expression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Chinese learners

Zhou, Yuan Si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s focused on showing the efficient method of teaching Causative Expressions for Chinese learners who think that Causative Expressions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rules in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Causative Expressions is treated as an important subject in Korean education. However, until now fewer studies on Causative Expressions and its teaching methods have been investigated in Korean education compared with other grammars. No definition and range are included in most of the Korean textbooks which only present the causative vocabularies without rules of grammar.

Therefore, Korean learners may feel difficult to use Causative Expressions practically. Although much research on Causative Expressions teaching for foreign learners has been performed, there are few studies targeting on Chinese learners.

This study revealed the same and different point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Korean and Chinese in Causative Expressions. In addition, we analyzed six Korean textbooks to choose the teaching content of the Causative Expressions. Furthermore, we suggested the teaching method through textbook analysis and developed for the learning characteristics of Chinese learners.

Key words : Causative Expressions, Chinese Learners, Korean-Chinese Comparision, Textbook Analysis, Teaching Method.

中文摘要

針對中國學習者的韓國語使動用法教育方案研究

漢城大學 大學院
韓國語文學科
韓國語教育專攻
周遠思

隨著韓國與世界各地在經濟文化等領域上的交流日益加深，學習韓國語的外國人數量也逐年遞增。由於中國語與韓國語在語序和語法方面有很多不同，從而給學習韓國語的中國人帶來很大困難。本文以學習韓國語的中國人為教育對象，針對韓國語使動表現如何教育和學習進行研究。

對中國學習者來說，使動用法的教學始終是個難點。這主要是由於韓國語的使動表達方式的特殊性所決定的。韓國語的使動用法大致分為三類。首先是“結尾詞使動”，即在動詞或形容詞後添加後綴（-이-, -히-, -리-, -기-, -우-, -구-, -추-）等構成使動詞，還有添加‘-게 하다’構成的使動用法，最後是‘시키다’使動用法。而中國語的使動用法則可分為‘有標誌使動’和‘無標緻使動’。在韓國語使動用法教育中，為了解決這些難點。本研究對中韓兩國使動用法進行了比較研究，並針對韓國現行韓國語教材中關於使動用法的内容進行了教材分析，並結合教材分析的結果提出一套適合中國學習者的韓國語使動用法教學指導方案。

本研究在第一章緒論部份對韓國語使動用法的先行研究進行了分析總結。

第二章主要對中韓兩種語言使動用法的特徵及表現類型進行了比較研究，得出中韓使動用法的共同點和差異點。

第三章對韓國現行韓國語教材中關於使動用法的内容進行了考察，並對各教材的優缺點

進行了歸納整理。

第四章則以二、三章為基礎，提出適合中國學習者的韓國語使動用法教育指導方案。

第五章結論部份對本研究的結果進行了整理。本文僅以個人觀點結合理論分析得出了關於中國學習者的韓國語使動用法教育指導方案，還存在很多不足之處，懇請廣大韓國語教育研究者批評指正。

關鍵詞：使動用法，中國學習者，漢中對比，教材分析，教育方案